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College of Music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usic

음악대학소식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College of Music Seoul National University



Contents

음악대학장 인사말 4

Masterpieces by SNU

- SNU 심포니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6
- SNU 심포니 콘서트 8
- SNU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9
- SNU String Ensemble 9

전통음악의 향기

- 국악과 교수연주회 10
- 국악과 봄 정기연주회 11

사회와 함께하는 음악대학

- 관악 구민과 함께하는_ 서울대학교 화요음악회 12
- 희망과 감동의 음악_ 서울음대 병원음악회 14
- Winds in Wind_ 관악 야외 연주회 16
- 제주 국제 관악제 17

반갑습니다!

- 열정을 간직한 소녀_ 신수정 신입동창회장 18
- 신임교수 인터뷰_ 김규동 교수 20

교수 동정

- 명예교수 추대_ 강석희, 박인수, 장정익 교수 22
- 학과별 교수 동정 25
- 추모하는 마음으로_故 김성태, 김순열, 김정길 명예교수 30

강의실을 찾아서

-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_ 세계음악 / Prof. Hilary V. Finchum-Sung 32
- 섬표는 감동이다_ 피아노문헌세미나 / 김귀현 교수 33

감사합니다

- 부모님, 감사합니다_ 학부모 초청연주회 34
- 발전기금 안내 및 출연자 36
- 작은 정성을 모아_ 풍강산업주식회사 최석호 대표이사 / 김미영 학부모 37

언덕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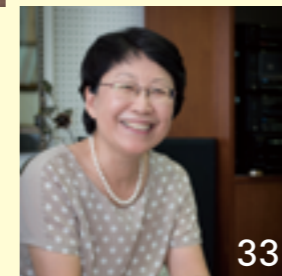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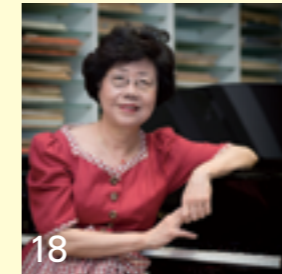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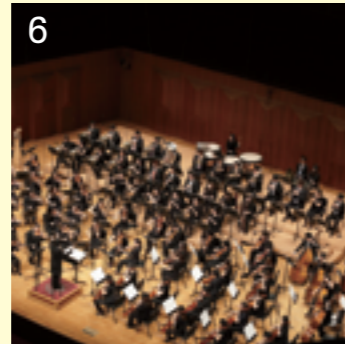
- 예술가의 집_ 이신우 교수 38
- 새롭게 듣기_ Benjamin Helmer 국악과 교환학생 40
- 이색전공_ 음악신경과학 & 법음악학 41

브라보! 프라이즈 워너

- 2012년도 1학기 콩쿠르 입상자 43
- 미국 샌프란시스코 오페라단 주역 데뷔_ 소프라노 이해정 44
- 이탈리아 부세토 베르디 국제 성악 콩쿠르 1위_ 테너 김정훈 45

학과&연구소 소식

- STUDIO2021 2012년 상반기 리뷰 48
- Summer Music Academy 50
- 연구소 · 학과 소식 52



Message from the Dean 4

Masterpieces by SNU

- SNU Symphony Orchestra Subscription Concert 6
- SNU Symphony Concert 8
- SNU Philharmonic Orchestra Subscription Concert 9
- SNU String Ensemble 9

Scent of Korean Traditional Music

- Department of Korean Music Annual Faculty Concert 10
- Department of Korean Music Spring Concert 11

College of Music Outreach

- SNU Tuesday Concerts 12
- SNU Hospital Concerts 14
- SNU Wind Orchestra Outdoor Concert 16
- Jeju International Wind Ensemble Festival 17

Interview

- Emeritus Prof. Su-jung Shin (President of the Alumni Association) 18
- Prof. Gyooodong Kim (New Professor) 20

Faculty News

- Emeritus Professor Award 22
- Faculty News 25
- Obituaries 30

Classroom

- Music of the World / Prof. Hilary V. Finchum-Sung 32
- Piano Literature Seminar / Prof. Kwi-hyun Kim 33

Appreciation

- Parents Invitation Concert 34
- SNU Foundation 36
- Every Little Helps 37

Essay

- Monet in Giverny / Prof. Shinuh Lee 38
- Approaching New Listening Habits / Benjamin Helmer 40
- Unique Major / Neuroscience of Music & Musicology of Law 41

Bravo! Prize Winner

- Winner's List 43
- Debut with the San Francisco Opera / Soprano Hyejung Lee 44
- Winner of the 50th Verdi Vocal Competition / Tenor Junghoon Kim 45

Academic News

- STUDIO2021 48
- Summer Music Academy 50
- Wrap-up News 52

음악대학장 인사말



여러분의 사랑과 격려 속에 한 학기를 마치고 이제 한 해의 결실을 맺을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학기는 법인화 원년 첫 학기인지라 여러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저희 음악대학이 학생 선발방식의 틀을 완전히 바꾼 것은 잠재력이 풍부한 학생들을 선별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물론 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을 수도 있음은 저희도 잘 알고있습디다만, 이러한 변화를 통해 저희가 세계 최고수준의 음악교육기관으로 발돋움하고, 더 나아가 국내 음악교육 풍토를 개선함으로써 우리 음악계가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 작은 소식지에 제 50회 베르디 국제성악콩쿠르 우승을 비롯한 학생들이 거둔 성과, 다양한 예술 및 학술행사, 그리고 세 분의 명예교수님께서 저희 곁을 떠나셨다는 안타까운 소식 등을 담았습니다. 곁에 두고 읽으시면서 저희를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을 향해 정진하는 재학생들, 이들을 사랑으로 보살피는 교수진, 말없이 헌신하는 교직원 여러분, 그리고 저희 음악대학을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2. 9

김영욱

음악대학 학장 김영욱

Message from the Dean



September, 2012

Through your caring of our school, we were able to finish last semester successfully. We've undergone so many details that we have to deal with, due to changing into corporate organization. Especially, we rebuilt admission system to pick out students with much potential. In spite of some confusion, we are expecting to upgrade music world of Korea.

In this booklet, notable events are simply mentioned, such as Winner of the 50th international Verdi vocal competition, diverse concerts, and sorrowful news that 3 emeritus professors passed away.

I express special thanks to our students who devote themselves to be an excellent musician, faculties who care for their students with love and staffs who work hard for us.

I hope you enjoy this booklet and we appreciate your encouragement and support.

Yours Sincerely,

Young Uck Kim

Dean of College of Music, Seoul Nat'l University

SNU 심포니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SNU Symphony Orchestra Subscription Concert

The SNU Symphony orchestra held its subscription concert on May 26th with a performance repertory featuring Bruckner's (Symphony No. 8). This was the first time the SNU Symphony Orchestra had performed a work by Bruckner, repertory that hadn't been included previously because of challenges of interpretation and technical skills inherent to Bruckner's compositions. Nevertheless, this performance proved a new leap forward for the Orchestra under the direction of conductor and with the outstanding efforts and performance by the SNU Symphony Orchestra.



60여년의 역사(1948~)를 지닌 **SNU Symphony Orchestra**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 2, 3, 4학년 학생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로서, 음악 감독 임현정 교수의 지도 아래 대한민국 음악의 산실로 국내 대학 오케스트라의 음악적 향상과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말러, 스트라우스, 베를리오즈, 스트라빈스키 등, 전문 관현악단들도 버거워할만한 작곡가들의 교향곡을 초연함으로써 젊은 음악가들의 열정과 기량을 선보여 왔으며, 2001년 독일 만하임을 비롯한 5개 지역에서 만하임음대와의 합동공연을 통해 독일 현지 언론의 극찬을 받은 바 있다. 또한 2002년에는 서울을 비롯한 2개 지역에서의 서울음대, 만하임음대 합동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침으로 독일 음악의 전통과 문화를 경험하였고, 2005년 4월 독일과 미국 카네기홀에서의 합동연주는 한층 더 성숙한 실력을 보여주며 서울대 음대의 세계화를 향한 한 걸음을 마련하였다. 오케스트라는 또한 2006년 서울대학교 60주년 기념 음악회로 말러의 천인 교향곡을 성황리에 연주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해 가을 거장 블라디미르 아쉬케나지와 함께한 오케스트라 워크숍 등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 오케스트라로 발돋움하고 있다.

지난 해 가을 정기연주 이후 새롭게 준비된 모습으로 돌아온 SNU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2012년 5월 26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 정기연주회 무대에서 브루크너의 교향곡들 중에서도 손꼽히는 대작인 《교향곡 제8번》을 선보였다. 연주 프로그램은 이 작품으로만 구성되었다.

브루크너의 《교향곡 제8번》은 연주시간만 80분에 이르며, 그 거대한 구조 속에서 동시대의 낭만주의 작품과 차별화 되는 종교적 경건함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또한 작품에 사용된 정교한 대위적 기법과 입체적 구성으로 인하여 19세기 교향곡의 정점에 위치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날 연주회는 객석의 기대 속에 브루크너 특유의 신비로움을 띤 1악장으로 시작되었다. 이어진 2악장 스케르초에서는 브루크너의 개성이 드러나는 선율과 리듬이 청중을 사로잡았다. 2악장 말미에는 지휘자가 열정적인 연주 도중 지휘봉을 놓치는 보기 드문 해프닝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당황하지 않고 맨손을 이용해 지휘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객석에서는 이에 대한 박수가 쏟아졌다. 분위기를 가다듬고 시작된 3악장 아다지오는 긴 호흡을 띤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브루크너 《교향곡 제8번》의 백미라 일컬어지는 부분이다. 여기서는 3대의 하프가 가세하여 연주회장의 분위기에 완전히 녹아든 SNU 심포니 단원들의 기량이 심분 발휘되었다. 이후 4악장의 피날레에 이르기까지 그간의 학생들과 교수의 노력을 짐작할 수 있는 흠 잡을 데 없는 연주를 들려주었다.

악장 권그림(바이올린·09) 학생은 “SNU 심포니 역사상 처음으로 브루크너를 준비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학기초와 이번 달 내내 연습으로 힘들었지만 연주는 만족스러웠다”고 평했다. 첼로 수석 현세은(첼로·09) 학생은 “임현정 선생님께서 음악적으로 완전히 몰입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신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고, 준비를 하면서 스스로에게도 많은 공부가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SNU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브루크너의 곡을 연주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거대한 편성과 특유의 음향으로 인해 그 동안 쉽사리 도전할 수 없었던 레퍼토리였다. 이번 공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다양한 시도를 해나가고 있는 지휘자와 SNU 심포니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역량이 돋보이는 연주회였다. 해를 거듭할 수록 변화된 모습과 발전된 기량을 보여주는 SNU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다음 정기공연을 기대해본다.



SNU 심포니 콘서트

SNU Symphony Concert

On May 9th, the SNU Symphony Orchestra performed in the University's Concert Hall. The Orchestra performed for the first time Verdi's opera overture. In addition, the Orchestra performed Jean Sibelius's violin concerto featuring violin major Eunae Koh and Bela Bartok's 《Concerto for Orchestra》.



5월 9일, 서울대학교 문화관 대강당에서 SNU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회가 열렸다. 첫 곡은 베르디의 오페라 《운명의 힘》 서곡으로 박현상(지휘 석사·12)의 지휘 아래 연주되었다. 두 번째 곡은 시벨리우스의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고은애(바이올린 석사·12)의 협연과 서아진(지휘 석사·11)의 지휘로 연주되었다. 마지막 작품은 바르토크의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으로 이종진(지휘 박사·12)의 지휘로 연주되었다. 세 곡을 각각 다른 지휘자가 맡아 모두 훌륭한 완성도를 선보였다. 특히, 현재 이미 지휘자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이종진을 제외한 나머지 두 지휘자 박현상과 서아진은 아직 대학원생임에도 불구하고 인상적으로 지휘를 마쳐 큰 박수를 받았다. 협연 무대에 올랐던 고은애 또한 역작으로 손꼽히는 시벨리우스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잘 소화해내 무대를 더욱 빛냈다. SNU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5월 26일 예술의 전당에서 브루크너 《교향곡 제8번》이라는 대곡 연주를 앞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이날 공연을 마쳤다.

SNU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SNU Philharmonic Orchestra Subscription Concert

On May 17th, the SNU Philharmonic Orchestra performed their regular subscription concert. For this concert, conducting major Minsang Jo conducted Debussy's 《Afternoon of a Faun》. In addition, Ravel's 《Tzigane》 for violin and orchestra featuring major KIM Hyejin and student conductor Minsang Jo was performed, as well as Schumann's 《Symphony No. 4》 under the direction of Professor Doc-ki Kim.



5월 17일, 서울대학교 예술관 콘서트홀에서 기악과 1, 2학년 학생들로 구성된 SUN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정기연주회가 열렸다. 이날 공연에서는 조민상(지휘·08)의 지휘로 드뷔시의 《목신의 오후 전주곡》이 연주되었고, 이어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라벨의 《치간느》가 김혜진(바이올린·11)의 협연으로 연주되었다. 마지막 순서로는 김덕기 교수의 지휘로 슈만의 《교향곡 제4번》이 연주되었다.

SNU String Ensemble

On May 29th, the SNU String Ensemble performed. With Jaeyun Kim conducting, the first-year string students performed Benjamin Britten's 《Simple Symphony》 and Tchaikovsky's 《Serenade in C for String Orchestra, op. 28》. In addition, current graduate students Heuiyun Kang and Taein Lee performed Vivaldi's 《Concerto for 2 Violoncello in G minor》 with the ensemble.



5월 29일, 서울대학교 예술관 콘서트홀에서 SNU String Ensemble 연주회가 열렸다. 지휘자 김재윤과 1학년 현악 전공 학생들이 함께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스트링 앙상블은 브리튼의 《Simple Symphony》와 차이코프스키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C장조 Op. 48》를 연주하였고 강희운(첼로 석사·09), 이태인(첼로 석사·11)과 함께 비발디의 《2대의 첼로를 위한 협주곡 g단조》를 협연하였다.

국악과 교수연주회



Department of Korean Music Annual Faculty Conce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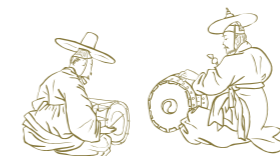
On teacher's day this past May 15th, the faculty of the Department of Korean music presented the very first Faculty Concert featuring concert by four faculty members and the premier of an orchestral work. This year marked the 50th anniversary of the Department's first graduating class, which lent this concert an even deeper significance. For this performance, Professor SngKn Kim premiered his work 《TAO in CAGE》. Following the performance of Kim's work was, Professor Dae-Seok Jeong's performance of the geomungo concerto he composed, 《Surijae》, Professor Jae Won Lim's performance of the daegeum concerto 《Dae Baram》 by composer Sanggyu Lee, Professor kyung sook Yang's performance of Yongseok Seo's haegeum sanjo arranged for orchestra and solo haegeum by Junho Lee, and Professor Ji-young Yi's performance of Dae Seong Kim's Gayageum Concerto No. 2 《Maehwa》.

지난 5월 15일, SNU 국악관현악단과 국악과 교수진이 함께하는 2012 국악과 교수연주회가 처음으로 열렸다. 특히 이번 연주회는 스승의 날 사제가 함께하는 무대였기에 큰 의미가 있었다. 또한 올해는 서울대 국악과가 첫 졸업생을 배출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로, 이번 연주회를 맞아 국악과 졸업생(석·박사 포함)으로 구성된 SNU국악관현악단이 창단되어 더욱 뜻 깊은 행사이기도 했다. 그런 만큼 객석은 청중들로 가득 찼으며, 자리에 미처 앉지 못한 이들은 객석 뒤에 선채로 연주를 감상하기도 하였다.

이날 지휘는 김성진 교수, 연주는 SNU국악관현악단이 맡았으며, 공연의 첫 순서로는 존 케이지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으로 작곡된 김승근 교수의 위촉 초연곡 《TAO in CAGE》가 연주되었다. 이 곡은 음과 양의 조화를 가장 완성된 형태로 여기는 도교의 중심인 도(道, TAO)를 존 케이지의 이름인 동시에 새장이라는 뜻을 지닌 케이지(CAGE) 안에 음향적으로 구현하고자

한 곡이다. 그 다음 곡은 정대석 교수가 직접 작곡하고 연주한 거문고 협주곡 《수리재(水里齋)》였다. 수리재는 작곡자의 벗인 다정(茶丁)이 살고 있는 집의 이름으로, 다정의 집과 다정의 모습이 3악장으로 표현된 작품이다. 세 번째 순서였던 대금 협주곡 《대바람소리》는 죽헌 김기수 선생 송수기념으로 1978년 이상규가 작곡한 곡으로 임재원 교수의 협연으로 연주되었다. 다음으로 이준호 편곡 《서용석류 해금산조 협주곡》이 양경숙 교수의 협연으로 연주되었고, 마지막 순서로 이지영 교수가 김대성의 가야금 협주곡 2번 《매화》를 연주하였다. 이 곡은 이지영 교수의 위촉으로 2011년에 작곡되었으며 아름다운 매화의 모습을 음악적으로 표현하고자 한 작품이다.

매 순서마다 국악과 교수들은 완벽하고 나무랄 데 없는 연주를 선보였고, 공연에 참석한 연주자와 관객들 모두에게서 서울대 국악과에 대한 깊은 애정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국악과 봄 정기연주회

봄비가 촉촉이 내리던 4월 25일 서울대학교 문화관 중강당에서 국악과 봄 정기연주회가 열렸다. 갑작스런 비 소식에도 불구하고 문화관은 관객들로 북적였다. 국악과의 수많은 연주행사들 중에서도 봄 정기연주회가 특별한 이유는 공연기획부터 곡 선정, 연습, 무대준비까지 모든 과정에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공연이기 때문이다.

이 날 국악과 학생들은 단아한 자태를 뽐내며 훌륭한 기량을 선보였다. 남너창 《태평가》를 불렀던 남창 김대운(정가·12) 학생과 여창 김희영(정가·09) 학생은 각자의 호방하고 힘찬 목소리, 섬세하고 호소력 있는 목소리를 조화롭게 하나의 음악으로 녹아 들게 했다. 정대석 작곡 거문고 합주 《동행》을 연주했던 거문고 전공 학생들은 “서로 다른 곡을 연주하는 듯하나 한 길로 가는 거문고 선율의 조화를 찾아볼 수 있다”는 작품설명을

그들의 연주로 승화시켜냈다. 지원석 작곡 《현성신화》를 연주했던 아쟁 전공 학생들과 박영란의 《오월의 빗길》을 연주했던 가야금 전공 학생들 또한 훌륭하게 그들의 연주를 마쳤다. 연주된 모든 곡들이 좋은 호응을 얻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었던 곡은 성악합창 《풍구소리·사설난봉가》였다. 《풍구소리》는 황해도 민요를 학생들이 합창곡으로 편곡한 것으로, 창자들의 좋은 무대매너와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가사로 청중의 웃음을 유발하였다. 《사설난봉가》는 박승현(국악 작곡·10) 학생이 작곡한 곡으로, 일반적으로 반주를 담당하는 장구의 자진모리 장단을 ‘입장단’으로 활용하여 더욱 흥이 느껴지도록 하였다. 이 역시 재치 있고 발랄한 가사와 무대매너로 청중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 한껏 흥이 돋우어진 분위기에서 마지막 곡인 송지섭의 《젊은 만파》가 연주되었고 공연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Department of Korean Music Spring Concert

On April 25th, the Department of Korean Music held its spring concert. The spring concert is planned, organized, and prepared solely by the students, so it is a chance for them to really show what they've learned and what they can do. The concert began with the wind ensemble court piece 《Gyeongpungnyeon》 followed by a male/female gagok performance of the court classic 《Taepyeongga》, an ajaeng quintet 《Hyeonseongsinhwa》, geomungo ensemble 《East Sea》, gayageum ensemble 《Shades of May》, a vocal ensemble folksong medley, and a new arrangement based on the principle melody of the court music classic 《Manpajeongsikjigok》 called 《Young Manpa》. The students presented a variety of styles from the most traditional to the most contemporary for this spring performance.





5월 8일 R. Strauss & Winds

SNU Tuesday Concerts

During the 2012 spring semester beginning April 3rd and ending May 15th, the College of Music presented Tuesday afternoon concerts. A diverse array of performers and genres represented this spring's Tuesday concert series, which included well-received solo performances, ensemble performances, and performances of newly created traditional music. The concert series proved a wonderful opportunity for the campus community as well as people living in the vicinity of SNU to enjoy performances by some of the best performers in Korea today.



4월 10일 김가온의 Art of Jazz



4월 3일 첼리스트 임경원과 피아니스트 장형준



5월 1일 리드믹스누



4월 24일 사랑의 묘약 갈라콘서트

관악구민과 함께하는 서울대학교 화요음악회

1994년 이후 19년째 계속되고 있는 서울대학교 화요음악회는 서울대 교직원 및 학생, 관악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공연으로 국내외 저명한 연주자들을 초대하여 다양한 음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12년 봄 학기 화요음악회는 4월 3일부터 5월 15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문화관 중강당에서 열렸다.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진행된 이번 화요음악회에는 첼리스트 임경원(성신여대 교수), 장형준(본교 기악과 교수), 재즈피아니스트 김가온(백석예술대학 교수) 등이 출연하였고, 학생오디션 우승팀들이 무대에 오르기도 했다. 이번 화요음악회는 여러 시대와 장르를 아우르는 다양한 레퍼토리를 통해 적절한 안배를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학기 첫 화요음악회 무대는 4월 3일 열렸다. 첼리스트 임경원과 장형준 교수는 이날 연주회에서 브람스 첼로소나타와 그리그 첼로 소나타를 연주하여 호평을 받았다.

4월 10일 '김가온의 Art of Jazz'를 주제로 진행된 두 번째 화요음악회는 재즈피아니스트 김가온의 연주로 채워졌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이론전공을 졸업하고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가온은 이날 연주회에서 《Solar》, 《Like the other day》,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등을 연주하였다.

세 번째 무대는 4월 24일 폭스컴머앙상블의 '사랑의 묘약 갈라콘서트'였다. 이날 연주에서는 도니제티의 오페라 사랑의 묘약의 아리아 《아름다운 그녀의 모습 Quando e bella》, 《트리스탄과 이졸데는 Della crudele Isotta》, 《남몰래 흐르는 눈물 Una furtive lagrima》 등을 선보였다.

5월 1일, 네 번째 화요음악회는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아나이스 콰르텟(Anais Quartet)과 리드믹 스누(Rhythmic SNU)의 무대였다. 아나이스 콰르텟은 서울대 기악과 학생들로 구성된 현악 4중주단으로서 이날 연주에서는 드보르작의 《현악 4중주 제12번 '아메리카 America'》를 연주했다. 타악기팀인 리드믹 스누는 《삼도 사물놀이》, 동해안 별신굿 중 《드렁깡이》를 선보였다.

5월 8일, 다섯 번째 화요음악회는 기악과 김영률 교수가 이끄는 음악대학 관악과 학생들의 무대였다. 'R. Strauss & Winds'라는 제목으로 열린 음악회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관악기를 위한 세레나데 E♭ 장조》와 《관악기를 위한 교향곡 'The Happy Workshop'》을 연주하였다.

이번 학기 마지막 화요음악회는 앞서 소개된 교수음악회(10쪽)가 장식하였다.

희망과 감동의 음악 서울음대 병원음악회

5월 25일, 기악과 최은식 교수의 지도 아래 음악대학 학생들이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을 찾았다. 병원음악회는 매일 답답한 병실에서만 지낼 수밖에 없는 환자들의 마음에 위로와 감동을 전해주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혜화동 서울대병원, 분당 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3개의 병원에서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된 바 있다.

이날 음악회의 프로그램은 슈만의 《알레그로 아다지오 Op. 70》, 판소리 흥보가 중 《흥보가 첫째 박 타는 대목》, 드보르작의 《현악 4중주 제13번 1악장》, 베르디의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의 《축배의 노래》 등 널리 사랑 받는 곡들로 연주되었다. 조용하던 병원에 서울 음대 학생들이 연주하는 음악이 울려 퍼지자 병원 환자들은 계속해서 공연장으로 몰려들었고, 객석은 의자가 모자라 정도로 가득 찼다. 국악과 성악, 기악 등 다양한 편성으로 다채롭게 꾸며진 이번 음악회는 이전의 병원음악회들과 마찬가지로 큰 박수 갈채를 받았다.

이번 병원음악회는 환자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연주를 맡았던 학생들에게도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음악회에 참여했던 현세은(첼로·09) 학생은 “아픈 환자들에게 음악을 통해 희망의 메시지를 주게 되어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보람을 느끼고, 이번이 두 번째로 병원 연주이지만 앞으로도 기회가 있다면 계속 참여하고 싶다”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SNU Hospital Concerts

The College of Music presented a concert at Boramae Hospital on May 25th. Hospital concerts offer a much-needed period of respite and enjoyment for hospital patients and their families, and this concert was warmly received by those in attendance. The program included 《Adagio and Allegro, Op. 70》, the first scene from the pansori 《Heungbuga》, the first movement from Dvorak’s 《String Trio No. 13》, and the “Toasting Song” from Verdi’s opera 《La Traviata》.



Winds in Wind 관악 야외연주회



SNU Wind Orchestra Outdoor Concert

On May 11th, the SNU Wind Orchestra performed an outdoor concert. The ensemble consists of the freshman and sophomore wind majors under the direction of winds Professor Kyung-Hwan Choi. The program included Satoshi Yagisawa's 《Machu Pichu》, Ennio Morricone's 《Nuovo Cinema Paradiso》, and Andrew Lloyd Weber's 《Memory》. Musical singer Geumdan Hong performed 《Think of Me》 with the Orchestra.

2012년 5월 11일 초여름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관악캠퍼스에서 'SNU Wind Orchestra 야외 연주회'가 열렸다. SNU Wind Orchestra는 최경환 교수(기악과)가 이끄는 기악과 관악전공 1, 2학년으로 구성된 합주단이다. 이날 프로그램은 사토시 야기사와(Satosi Yagisawa)의 《마추 피추 Machu Pichu》, 엔니오 모리코네(Ennio Morricone)의 《뉴 시네마 파라다이스 Nuovo Cinema Paradiso》, 앤드류 로이드 웨버(Andrew Lloyd Weber)의 《메모리 Memory》 등 친숙하고 유명한 곡들로 구성 되었으며, 뮤지컬가수 홍금단의 협연으로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씽크 오브 미 Think of Me》를 선보였다. 가수 홍금단은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왕과 나》, 《파우스트》 등에 출연하였고 제 15회 최고 인기연예대상 뮤지컬 배우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 관악 야외 연주회는 캠퍼스에 생기를 불어넣고 활력소를 제공하기 위하여 2년 만에 야외 음악회를 부활시켜 실시되었다. 듣기 편안한 영화음악 위주로 편성된 프로그램과 더워지는 날씨에 관악기의 시원함이 더해져 관객들에게 활기를 선사하는 멋진 공연이었다.

2012년 제주 국제 관악제

Jeju International Wind Ensemble Festival

The Jeju International Wind Ensemble Festival (JIWEF) is a major music festival combining the wind orchestra's easiness of outdoor performances with Jeju's peaceful image and summertime romance. The JIWEF has opened every other year with the effort and work of Jeju natives since 1995.



2012년 제주 국제 관악제가 '섬, 그 바람의 울림(Island, the Resonance of Wind)'이라는 주제로 2012년 8월 10일부터 18일까지 제주도 문예회관·아트센터·해변공연장 등지에서 열렸다.

서울대학교 관악합주단은 이번 행사에서 김영률 교수(기악과)의 지휘로 8월 11일, 12일, 13일 세 차례 연주회를 가졌다. 관악합주단은 제주해변 공연장에서 리드(A. Reed)의 《봄의 사냥개 Hounds of Spring》, 모차르트(W. A. Mozart)의 《호른 협주곡 4번 Horn Concerto No.4 K.495》등 을 연주하였다. 8월 12일 저녁 8시 서귀포 천지연폭포 야외공연장에서 가진 두 번째 공연에서는 차이코프스키 (P. Tchaikovsky)의 《슬라브 행진곡 March Slave》과 수자(J. Ph. Sousa)의 《맨하튼 비치 Manhattan Beach》, 엘튼 존(Elton John)의 《라이온킹 모음곡 Lion King Selections》등 을 연주하여 뛰어난 기량과 수준 높은 무대를 보여주었다.

서울대학교 관악합주단의 마지막 무대였던 8월 13일 오후 3시 제주도 문예회관 대극장 연주에서는 그레이저(P. A. Grainger)의 《링컨셔에 핀 야생화 Lincolnshire Posy》와 번스타인(L. Bernstein)의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Westside story》를 춤곡으로 편곡한 라벤더(P. Lavender)의 곡 등이 연주되었다.





열정을 간직한 소녀 신수정 명예교수

Interview with Emeritus Prof. Soojung Shin, President of the Alumni Association

On May 22nd, we visited the new president of the alumni association, Professor Emerita Soojung Shin. Since 1969, she has served the College in many positions including serving as an instructor, professor, dean, and now professor emerita. Not only has she served the Alumni Association for a long time, but she also serves as a member of the Republic of Korea Academy of Arts, Director of Art Center Korea, and a judge for international performance competitions. Through this interview, one can feel Shin's love for and dedication to her work with the Alumni Association.

5월 22일, 신입 동창회장직을 맡게 된 신수정 명예교수님을 찾았다. 신수정 명예교수는 1963년 본교 기악과를 졸업한 이후로 오스트리아, 미국을 거치며 음악공부를 계속 해오다 69년부터 교육자로서 다시 한번 모교와 연을 맺기 시작했다. 강사부터 교수, 학장, 명예교수, 그리고 동창회장까지. 그만큼 신수정 명예교수는 모교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

신수정 교수는 어느새 동창회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 예술의 전당 이사 등을 맡으며 한국 음악계의 원로로 자리매김하였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만큼은 학창시절의 소녀 그대로였다. “그때는 지금만큼 바쁘지 않아서 여유롭게 좋아하는 음악만 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즐겼던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면 있었던 것 같아요.”라고 학창시절을 회상했다. 자신의 음악여정을 찬찬히 돌아보며 신수정 교수는 자신의 세대가 한국의 클래식 음악 역사를 처음부터 다 본 세대이기 때문에, 일종의 역할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혜구(전 음대학장, 1909-2010) 선생님, 김성태(전 음대학장, 1910-2012) 선생님 등 첫 시작을 여셨던 선생님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세대를 알고 있고 활동도 계속 하고 있는 내 세대가 커뮤니케이션의 중간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가 잊혀져 가는 건 못내 아쉽기도 해요.”

올해 맡게 된 동창회 일, 이에 대해 신수정 교수는 벌써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다른 단과대학의 경우에는 동창회의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음악대학의 경우는 일단 모이기가 힘든 것 같아요. 음악 특성상, 뭘 하든 마찬가지로 지겠지만 뛰어나야 해요. 지금 실제로 음악활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 잘 알려진 사람들은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전부는 아닙니다. 졸업생들 전부가 완전히 음악을 전업으로 삼지는 않을지라도 어느 정도 음악활동을 하고 있겠죠. 그러다 보면, 각자의 활동범위가 많이 달라지고 결국 기회가 많지 않겠죠. 활약하는 사람들은 더 활약하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더 숨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신수정 교수는 이와 같은 아쉬움을 토로하며 우선은 전 동창회장이었던 서계숙 교수가 진행하던 일을 잘 받아서 마무리 짓는 일을 우선적으로 할 것임을 강조했다.

신수정 교수의 바쁜 일정 중 하나는 굵직한 국제콩쿠르들의 심사위원 활동이다. 많은 젊은 음악가의 꿈은 국제 콩쿠르에 입상하여 세계적인 연주자로 성장하는 것이다. 과연 어떤 연주가 좋은 연주일까. 이에 대해 신수정 교수에게 물었다. “저는 약간 어떻게 말하면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제가 배웠던 음악도 그렇고, 전통적인 것에 대한 일종의 신앙 같은 것이 있어요. 클래식의 근원에 대한 동경과 경이로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선은 이 전통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미 (이 정도는) 잘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전부 다 1등짜리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도 해요. 그 학생만의 특별한 점이 있어야 하죠. 물론 너무 과장될 경우에는 진실되지 못한 연주를 들려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한 연주는 과장되기 마련이고, ‘더 크게, 빠르게, 다르게’에만 집중하게 되면 음악의 본질과는 다른 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을 잘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수정 교수는 요즘 학생들에게 너무 바쁜 것 같아 안타깝다는 마음을 전했다. “내가 학창시절에 누리고 즐기던 여유와 아름다움은 이 시대 학생들에게엔 사치인 것 같다”며, “정보가 많아 어찌 보면 유리한 상황일 수도 있지만 경쟁이 갈수록 심해져서 무척 힘들 것 같다”는 말을 덧붙였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가장 중요한 음악의 본질적인 면을 잊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아무리 바빠지고 경쟁이 심해졌어도 사람의 본성이 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본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는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것이니까, 그걸 잊지 않은 채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음악에 대한 열정만큼은 학창시절의 소녀처럼 순수한 신수정 동창회장. 앞으로도 우리나라 음악계에서 오래도록 아름다운 순간들을 같이 맞이하길 바란다.

인터뷰 · 정리 | 신예슬 (작곡과 이론전공)



신임교수 김 규 동

Interview with New Face Prof. Gyoodong Kim

Professor Gyoodong Kim joined the Department of Composition this year. Professor Kim has won prestigious awards for his compositions and has engaged vigorously in presenting his work at home and abroad. Never one to shy away from bold experimentation, Professor Kim has composed a broad range of pieces including electronic works and pieces for Korean traditional instruments. In his short time with the College, his passion for music and his compositional conviction have become clear to all those who know him. Through this interview, we have the opportunity to get to know him better as well as to become familiar with his work as a professor and his activities as a celebrated composer.

명지대 음악학부 교수를 거쳐 올해 모교인 서울대 작곡과로 새로 부임하게 된 김규동 교수. 그는 제21회 대한민국 작곡상 수상 등을 비롯하여 지금까지 국내외의 여러 음악회에 활발한 작품활동을 펼치고 있는 작곡가이다.



봄이 한창이던 5월, 다소 긴장된 마음으로 찾은 그의 연구실에서는 기다렸다는 듯 직접 내린 커피와 함께 따뜻한 대접을 받을 수 있었다. 곧 그의 책상 위에 놓인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시선을 빼앗긴 채 자연스레 취미 얘기가 오갔다. “원래 꾸미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내 공간, 혼자 있을만한 곳들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요. 색깔 배열 같은 것도 너무 좋아하고요. 비싼 건 아니지만 작업이 끝날 때마다 하나씩 가져다 놓곤 하죠.” 이 외에도 독서와 영화감상, 그리고 커피(핸드드립, 로스팅)를 자신의 취미로 언급한 그는 분명 다양한 세대와 관심사를 공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그의 학창시절이 있었다. 그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배웠던 피아노 보다는 중학교 때 처음 접한 컴퓨터에 빠져들었다고 했다. “우리나라에 처음 말로만 들던 컴퓨터가 들어왔을 때, 친구들과 아마추어 컴퓨터 클럽을 만들어서 공부도 하고 전시도 하곤 했어요. 그 땀 프로그래머가 꿈이라고 떠들고 다녔죠.”

그랬던 그가 음악의 길로 들어서게 된 계기로는 기타와 바흐를 꼽았다. “기타는 정말 스스로가 좋아서 시작했거든요. 멋모르고 코드 몇 개로 가스펠 송도 쓰고, 축제에 자작곡도 들고 나가고, 그러다 우연히 제 곡이 라디오에 방송되기도 했죠. 비슷한 시기에 바흐의 음악을 접했는데, 당시엔 바흐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 곡들을 좋아했어요. 이런 음악도 참 괜찮은 거구나 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 둘이 균형을 잡아 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는 또 이 시기에 프로그래시브부터 재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음악 장르를 접한 것이 큰 보탬이 되었다고 한다.

이제 입장이 바뀌어 요즘 아이들(그는 “제자”나 “학생” 보다 정감 어린 “아이들”이라는 표현을 더 좋아한다고 밝혔다.)의 수업 준비로 분주한 그는 즐거움이 묻어나는 바쁨과 동시에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나름대로 강의 준비를 많이 한다고 생각했는데, 새삼스럽게 어느새 제가 옛날 책들을 다시 보고 있더라고요. 생각지 못한 질문에 긴장하기도 하고, 하지만 ‘피드백’을 받는다는 건 서로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는 학생들이 젊음으로서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자신이 선생으로서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을 서로 교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에게 있어 교육은 창작활동과 분리될 수 없는 상호작용으로 보였다.

많은 것이 변한 지금도 학창시절만큼은 과거와 다를 바 없다는 그는 자신이 학생들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으로 ‘스케치’를 강조했다. “쉽게 말하면 계획을 짜는 건데, 학생들에게 기록을 많이 부탁해요. 갑자기 막연하게 곡에 들어가면 많이 힘들니까, 평소에 감정의 부스러기나 좋은 아이디어들을 틈틈이 글로 기록해두면 시간이 지나 다듬어지고 숙성이 되거든요. 작곡은 그걸 바탕으로 단순히 끝말잇기가 아니라 퍼즐 맞추기처럼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반대로 그는 교수의 입장에서 자칫 학생들에게 고정관념을 심어주게 되는 것을 염려했다. “어쩔 수 없이 책으로 가르치지만 역사적으로 규범이 뒤집힌 사례들이 많잖아요. 생각의 틀을 막지 않기 위해서 ‘일반적으로’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하죠. 언제나 가능성을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더불어 학생들에게 스스로의 “알 수 없음”에 대해 손가락질 하기보다는 관용 또는 묵인하라는 당부를 덧붙였다. 비단 음악에만 한정되는 얘기가 아니었다. 그가 학생들에게 심고자 하는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열린 사고였다.



그래서 일까, 스스로도 전자음악에서 국악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해온 그는 최근 자신의 상황을 “침잠(沈潛)”으로 표현했다. “사실 그 동안의 시도에서 한계를 많이 느꼈고, 무엇보다 제 스스로가 만족을 못 했어요. 이게 아닌데, 하는. 그래서 요즘 길을 잃었다는 얘기를 자주 해요. 캄캄한 방에 촛불 하나 켜둔 느낌이랄까요. 하지만 이런 시기가 한 번쯤 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걸로 드러나진 않더라도 속으로 상호작용은 계속되는 거니까 곧 제 길을 찾아 나서게 되겠죠.” 그에게 있어 ‘침잠’은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이는 기회인 동시에 열린 가능성을 품은 시기였다.

이러한 자신의 길에 대한 고민에도 불구하고 그가 특별히 애착을 갖는 작품으로는 《그 섬의 느티나무》와 《아버지의 노래》(2002)를 꼽았다. “《그 섬의 느티나무》는 지도교수님의 회갑을 기념해서 준비했던 건데, 위촉 받은 시와 선생님 작품에서 빌린 세 마디로 했던 작업이 너무 재미있었어요. 작업 자체가 의미를 가지다 보니까 굉장히 애착이 갔죠.” 《아버지의 노래》는 돌아가신 그의 부친에 대한 추억이 담긴 작품으로 평소 부친이 흥얼거리던 선율을 이용해 작곡된 실내악 작품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피드백’을 주는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는 작곡가 김규동. 그와 함께한 짧은 시간을 통해 그의 음악에 대한 열정과 스스로의 방향에 대한 분명한 소신을 엿볼 수 있었다. 작곡가로서, 그리고 이제 서울대 교수로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 그의 활동을 기대해본다.

인터뷰 · 정리 | 박성우 (작곡과 이론전공)

명예교수 추대

Emeritus Professor Award



명예교수 추대 (2012.3.1)

강 석 희 (작곡과 작곡전공)

박 인 수 (성악과 테너)

신 수 정 (기악과 피아노 전공)

장 정 익 (작곡과 작곡 전공)



강 석 희
E. Prof. Sukhi Kang

작곡가 강석희교수가 2012년 1학기부터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명예교수로 부임했다. 1966년 전자음악의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에서 한국 최초로 전자 음악 《원색의 향연》을 발표하고 1969년 한국 최초로 국제 현대 음악제를 주관한 그는 우리나라에 전자음악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또한 1970년 일본 오사카 국제 만국박람회의 한국관을 작곡하며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한국의 현대음악을 알리는데 노력해왔다. 1984년부터 1990까지 국제현대음악협회(ISCM) 부위원장을 역임하였고 1997년 국제현대음악협회(ISCM) 세계음악제를 주관한 바 있다. 그의 대표작품으로 《필름과 전자음악을 위한 '용'》과 88올림픽 성화음악 《프로메테우스 오다》가 있다.

- 1960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졸업
- 1970 - 1975 독일 하노버 음대 및 독일 베를린 공과대학 및 음악대학 작곡과 수석
- 1976 Rostrum of composers(Paris-Unesco) 작곡상 수상
- 1982 - 2000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교수
- 2000 - 계명대학교 작곡과 특임교수
- 2006 - 2009 일본 소비학원대학교 음악대학 초청교수
- 2010 - 대한민국예술원 정회원
- 2012 -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박 인 수
E. Prof. Insoo Park

성악가 박인수 교수가 2012년 1학기부터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로 부임했다. 국·내외 각종 오페라 300회 이상 주역 출연, 독창회 2000회 이상을 개최 하며 왕성한 활동을 펼친 그는 1991, 1994년 방송대상을 수상하며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기도 하다. 또한 새로운 음악을 위한 시도로 서양음악과 국악이 혼합된 김덕수 사물놀이와 협연을 비롯하여 불우이웃을 위해 수많은 자선무대 출연하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2004년부터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석좌교수를 지내고 있으며 현재 백석대학교 음악대학원 대학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졸업
- 줄리어드 음악원 마리아 칼라스 장학생
- 맨하튼 음대 장학생
- 1983 - 2003 서울대학교 음대대학 성악과 교수
- 백석대학교 음악대학원장, 석좌교수
- 2012 -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작곡가 장정의 교수가 2012년 1학기부터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로 부임했다. 장정의 교수는 1975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를 졸업한 후 성덕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음악교사로 재직하다가 도독(渡獨)하여 슈트트가르트(Stuttgart) 음악대학에서 작곡과 Diplom을 취득했다. 국제음악제 범음악제(PAN MUSIC FESTIVAL) 운영위원장 및 아시아작곡가연맹(ACL)한국지부, 국제현대음악협회(ISCM)한국지부 이사직을 역임하고, 국내의 대표적인 작곡동인인 "미래악회" 회장으로서 대한민국 창작음악계를 주도해 왔다. 그의 작품은 한국전통음악의 본질을 드러냄으로써 자신의 음악의 정체성을 찾아 궁극적으로 한국음악의 세계화에 기여한 작곡가로 평가 받고 있다. 대표작으로 《금관 7중주를 위한 '풍장'》, 《관현악을 위한 '남해'》, 《'명'시리즈》 등이 있다.

- 1975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졸업
- 1985 독일 Stuttgart 음악대학 작곡과 졸업 (Diplom)
- 1989 - 2011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교수
- 1990 - 1998 범음악제 운영위원장
- 1985 - 2010 ISCM 국제현대음악협회 한국지부 이사
- 2003 - 2006 ACL 아시아작곡가연맹 한국지부 이사
- 2003 - 2010 미래악회 회장
- 2012 -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장 정 익
E. Prof. Cheng-iek Chang

※ 신수정 명예(E. Prof. Soojung Shin)교수님에 관한 사항은 18쪽을 참조해 주세요.



학과별 교수 동정

성악과

_ Department of Vocal Music

박세원 교수, 창작 오페라 《연서》의 예술 총 감독

Professor Se-Won Park served as the Director of the new opera 《Yeonso》

박세원 교수는 2012년 3월15일~18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공연된 작곡과 최우정 교수의 작품 서울대표 창작 오페라 《연서》의 예술 총 감독을 맡았다.

윤현주 교수, 제6회 ‘한국가곡의 밤’ 출연

Professor Hyun-Joo Yun performed in the 6th “Korean Vocal Performance Evening”

윤현주 교수는 지난 2012년 3월 19일 장천아트홀 기획시리즈인 ‘The Prestige’에 출연하여 하늬챔버오케스트라와 협연하였고 5월15일 한국슈베르트협회에서 주최한 제63회 정기연주회인 ‘슈베르트 명가곡과의 만남’에 출연하여 슈베르트 리트에 대한 음악적 해석을 보여주었다. 5월 21일에는 영산아트홀에서 열린 영미가곡연구회 30주년기념 음악회에 특별출연하였고, 6월 1일에는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에서 열린 제6회 ‘한국가곡의 밤’ 출연하였다.

서혜연 교수, ‘이태리 낭만주의 오페라 여행이야기’에서 독주

Professor Hye-Yeon Seo, performed a solo in “Italian Romantic Operas”

서혜연 교수는 지난 6월4일 신한아트홀에서 열린 ‘제2회 신한음악상’에서 성악부문 심사위원장과, 6월23일 열린 신영옥 콩쿠르의 심사위원장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7월17일 부천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 부천시립합창단 협연 ‘이태리 낭만주의 오페라 여행이야기’에서 독창자로 연주하였다. 8월11일에는 경기도 문화의전당에서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협연하여 오페라 마스카니의 《카발레리나 루스티카나》와 오페라 레온카발로의 《팔리아치》에서 주역을 맡았고 8월13~15일에는 경기문화재단과 함께하는 지적장애아이를 위한 We Can Music Camp에서 성악부문 초청특강 강사로서 행사를 이끌었다.

박미혜 교수, 세계총회(AEC)개최 기념 ‘세계 가곡의 향연’ 콘서트 출연

Professor Mi-Hae Park performed at the IAEC memorial concert “A Feast of World Vocal Performances”

박미혜 교수는 지난 3월13일 오스트리아 비엔나 ‘Musikverein Goldener Saal’에서 열린 ‘Schwingungen’ 콘서트 초청되어 Budapest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협연하였다. 3월23일과 4월25일에는 세종문화회관 대극장과, 창원 성산아트홀에서 열린 제12회 국제교육도시 연합 세계총회(AEC)개최 기념 ‘세계 가곡의 향연’ 콘서트에 출연하였다. 4월24일에는 지휘자 Christian Schulz와 뉘른베르크 심포니오케스트라와 함께 《THE PORTRAIT OF MIHAE PARK》이라는 타이틀로 Sony Music에서 음반을 출시하였고 7월9일과 12일에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타운홀과 웰링턴 오페라하우스에서 한국-뉴질랜드 수교50주년 기념 음악회 초청 연주 그리고 8월10일 아음음악회 초청 리사이틀을 열었다.

박헌재 교수, ‘창작오페라갈라콘서트’ 에서 오페라 《왕자호동》에서 호동왕자 역으로 출연

Professor Hyun-Jae Park, performed the part of Prince Hodong in the opera 《Prince Hodong》 for the Contemporary Opera Gala

박헌재 교수는 지난 3월18일 영산 양재홀 초청 독창회에 출연하였고, 5월18일에는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에서 열린 2012 대한민국 오페라페스티벌 초청 오페라 “호프만의 이야기”에서 주인공 호프만으로 출연하였다. 또한 6월7일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2012 대한민국오페라페스티벌 ‘창작오페라갈라콘서트’ 에서 오페라 《왕자호동》에서 호동왕자 역으로 연기하였다.

연광철 교수, 오페라 《Parsifal》에서 “Gurnemanz”역으로 출연

Professor Gwang-Chul Youn performed the part of Gurnemanz in the opera 《Parsifal》

연광철 교수는 지난 2월4일 독일 베를린국립극장에서 공연된 오페라(Eugen Onegin)에서 “Gremim”역을 맡았다. 또한 4월28일과 5월1일에는 오스트리아 비엔나국립극장에서 공연된 오페라(Don Carlos)에서 “Filippo II”역으로 출연하였다. 5월26일에는 베를린국립극장에서 공연된 오페라(Simon Boccanegra)에서 “Jacopo Fiesco”역으로 출연하였고, 6월6일 이태리 라스칼라극장에서 공연된 오페라(Luisa Miller)에서 “Wurm”역으로 출연하였다. 7월29일과 8월5일에는 독일 바이로이트극장에서 공연된 오페라(Parsifal)에서 “Gurnemanz”역으로 출연하였다.

작곡과

_ Department of Composition

정태봉 교수,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166회 정기연주회에서 교향시 《한강(漢江)》 초연

Professor Tai-Bong Chung’s composition 《Hangang》 was performed at the Bucheon Philharmonic’s 166th performance

5월 25일 열린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166회 정기연주회에서 정태봉 교수의 교향시 《한강(漢江)》이 초연되었다. 그리고 6월 14일 서울대학교 예술관 콘서트홀에서 열린 정태봉 교수의 회갑(回甲) 기념 사제동행 음악회 “...길”에서는 제자들의 작품 9곡과 함께 정태봉 교수의 가곡 “길”이 연주되었으며, 같은 날 저녁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현대음악시리즈 STUDIO2021의 주최로 열린 렉처 콘서트 “CHUNG Tai-Bong at 60”에서는 음악학자 서정은 박사의 강연과 함께 정태봉 교수의 작품 3곡 – 2인의 타악기 주자를 위한 《전설(傳說)》, 현악 4중주를 위한 《니타나(尼陀那)》, 현악5중주 《진도, 밀양 아리랑 두 주제에 의한 이중변주곡》 – 이 연주되었다. 또한 정태봉 교수는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월간 음악춘추’에 연재하였던 칼럼을 엮은 책 《바흐와의 가상대화》를 발간하였다.

Roland Breitenfeld 교수, “FETZEN eine modulare Klang/Raum-Komposition”에서 작품 초연

Professor Roland Breitenfeld’s composition was premiered at “FETZEN eine modulare Klang/Raum-Komposition”

3월 16일 독일 프라이부르크에서 열린 Kunstverein Freiburg 주최 음악회 “FETZEN eine modulare Klang/Raum-Komposition”에서 Roland Breitenfeld 교수의 작품 《nachgehört...》, for flute, trumpet, trombone, 2 percussion players, guitar, violin and cello 가 초연되었다.

임헌정 교수,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심포니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에서 브루크너 《교향곡 제8번》 지휘

Professor Hun-Joung Lim conducted Bruckner’s 《Symphony No. 8》 at the SNU Symphony Orchestra Subscription Concert

임헌정 교수는 4월 11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 “2012 교향악축제 –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에서 바그너의 오페라 《뉘른베르크의 마이스터징거》 서곡과 부르흐의 《스코틀랜드 환상곡》, 베토벤의 《교향곡 제5번》을 지휘하였다. 5월 26일에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정기연주회에서 브루크너 《교향곡 제8번》을 지휘하였으며, 6월 15일에는 소프라노 강혜정 교수, 테너 박현재 교수의 협연으로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찾아가는 음악회 “부천필이 들려주는 명성가”에서 프랑크의 《생명의 양식》 등을 지휘하였다. 또한 7월 25일에는 브루크너 교향곡 전곡 연주 시리즈 중 여덟 번째 음악회 “First Glory”에서 바그너의 오페라 《트리스탄과 이졸데》 중 〈전주곡과 사랑의 죽음〉과 브루크너의 《교향곡 제7번》을 지휘하였고, 8월 23일에는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해설음악회에서 모차르트 오페라 《마술피리》의 서곡을 비롯한 5곡의 서곡을 지휘하였다.

김덕기 교수, “2012 대한민국오페라페스티벌”에서 《라 트라비아타》 지휘

Professor Doc-Ki Kim conducted 《La Traviata》 at the 2012 Republic of Korea Opera Festival

김덕기 교수는 5월 8일 “2012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학부모 초청행사”에서 베르디의 오페라 《운명의 힘》 서곡 등을 지휘하였고, 5월 17일 서울대학교 예술관 콘서트홀에서 열린 음악대학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에서 슈만의 《교향곡 4번》을 지휘하였다. 또한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주최하는 “2012 대한민국 오페라페스티벌”에서 6월 1일부터 3일까지 서울오페라단이 공연하는 베르디의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를, 6월 7일에는 국립오페라단이 공연하는 “창작 오페라갈라”를 지휘하였다.

이돈웅 교수, “Korean Music Project 2012” 창작음악연주회에서 《두대의 대금과 전자음향을 위한 음악》 연주

Professor Donoung Lee piece 《Work for Electronic Sounds and Two Daegeum》 was performed as a part of the “Korean Music Project 2012” contemporary music performance

4월 2일, 구 서울역을 원형 복원하여 다양한 문화예술이 창작되고 교류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공식 출범시킨 “문화역서울 284”의 개관전 기념 연주회에서 이돈웅 교수의 창, 알토색소폰, 인터랙티브 하이브리드 엘렉트로 어쿠스틱 밴드를 위한 《한소리》가 연주되었다. 그리고 5월 9일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열린 “Korean Music Project 2012” 창작음악연주회에서는 이돈웅 교수의 《두대의 대금과 전자음향을 위한 음악》이 연주되었다.

이신우 교수, 2012 교향악축제 – 원주시립교향악단에서 교향시 《백제》 서곡 발표

Professor Shinuh Lee’s prelude 《Baekche》 was performed as a part of the 2012 Symphonic Festival by the Woonju City Symphony Orchestra

4월 19일 백운아트홀에서 열린 원주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와 4월 22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 “2012 교향악축제 – 원주시립교향악단”에서 이신우 교수의 교향시 《백제》의 서곡이 연주되었다. 8월 4일에는 미국 네브래스카 링컨에서 열린 “Horizon Highlight Series – ClarinetFest 2012”에서 이신우 교수의 작품 《Concerto for clarinet and orchestra》의 클라리넷과 피아노를 위한 버전이 연주되었다.

최우정 교수, 창작 오페라 《연서》가 새로이 각색되어 공연

Professor Uzong Choe’s opera 《Yeonseo》 was newly adapted and performed

3월 15일부터 18일까지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는 작년 성황리에 공연을 마친 최우정 교수 작곡의 서울시대표 창작오페라 《연서》가 새로이 각색되어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시합창단의 연주로 공연되었다. 또한 최우정 교수가 음악으로 참여한 연극 《공리》가 3월 23일부터 3월 25일까지 대전문화예술의전당, 4월 24일부터 5월 13일까지 백성희장민호극장,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 5월 24일부터 6월 3일까지 고양 아람누리 새라세극장에서 공연되었다.

이석원 교수, 국제음악학회(IMS) 상임이사 취임

Professor Suk Won Yi was appointed Executive Director of the International Music Society

이석원 교수는 올해 7월 1~7일까지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국제음악학회(IMS: International Musicological Society)의 총회에서 상임이사(Directorium at Large)로 취임하고, 7월 6일 열린 새 집행부의 첫 이사회에 참석하였다. 이로써 한국은 오스트리아, 독일, 영국, 미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10번째 IMS 상임이사국이 되었다. IMS는 Guido Adler를 비롯한 음악학 분야의 선구자들을 중심으로 음악에 관한 학문적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학술기구로 1927년 설립되었으며, 음악사학자 Donald J. Grout, 그로브 음악사전의 편집인인 Stanley Sadie등이 회장을 역임하였다. IMS 상임이사는 국가별로 추천된 복수후보를 대상으로 전세계 50여개국 회원들의 투표로 결정되며, 임기는 5년이다.

민은기 교수, 6월 연구서 간행

Professor Eungi Min published research papers in June

올해 6월 민은기 교수는 《독재자의 노래, 어떻게 그들이 대중의 눈과 귀를 막았는가》라는 연구서를 간행하였다.

오희숙 교수, 19th IMS Congress에서 논문 발표

Professor Hee Sook Oh presented a paper at the 19th IMS congress

오희숙 교수는 7월 이태리 로마에서 개최된 19th IMS(International Musicological Society) Congress에서 논문 발표(“Co-existence and Confluence of “Other” and “Self” Identity in late 20th-century Korean Music)를 하였다. 또한 『피아노 문헌 연구 1, 2』를 공저로 출간하였다.

기악과

_ Department of Instrumental Music

최희연 교수,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 연주

Professor Hie-Yeon Choi performed in the full-length Beethoven Violin Sonata performance series

지난 4월 12일 금호아트홀의(고전음악 작곡가 가이드)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피아노전공 최희연 교수의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 연주 시리즈'(바이올린: 이미경)가 열렸다. 이날 최희연 교수는 작년 9월을 시작으로 이어온 전곡 연주의 마지막 회를 《소나타 제3번 내림마장조, Op.12/3》, 《소나타 제5번 바장조 붐 Op.24》, 《소나타 제10번 사장조, Op.96》를 연주하여 큰 찬사를 받았다. 최희연 교수는 또한 4월 21일 김해 문화의 전당에서 열린 김해 음악제 피날레 콘서트에서 드뷔시 연습곡 전곡을 연주하는 기량을 펼쳤다.

Aviram Reichert 교수, 남아프리카 Stellenboch 음대 마스터클래스

Professor Aviram Reichert taught a master class in South Africa's Stellenboch College of Music

지난 3월 23일부터 30일까지 Aviram Reichert 교수는 남아프리카를 방문하여 Stellenboch 음악대학에서 열린 피아노콩쿠르의 심사와 6회의 마스터클래스와 독주회를 개최하였고, 4월 24일에는 미국의 미시간대학에서 마스터클래스를 가졌다. 또한 4월 9일부터 13일까지 그가 속한 Grium 피아노 콰르텟과 함께 본 교를 비롯한 연세대, 고려대, 카이스트 대학과 순회공연을 하였다.

백청심 교수, SNU Celli Ensemble 협연

Professor Chung-Sim Baik participated in the SNU Cello Ensemble and Orchestra

백청심 교수는 지난 5월 22일 영산아트홀에서 열렸던 첼리스트 전봉초 교수 10주기 추모음악회를 문문들과 참여하였다. 전봉초 교수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학장을 역임하였으며 우리나라의 대표적 현악 앙상블 단체인 바로크합주단(단장 김민 명예교수)을 창단하여 실내악 발전에 크게 공헌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7월 7일에는 영산아트홀에서 "백청심 교수와 SNU Celli Ensemble"을 통하여 그의 제자들과 함께 무대에 올랐다.

이경선 교수, Lincoln Center에서 드보르작 퀸텟 연주

Professor Kyung Sun Lee performed the Dvořák Quintet at Lincoln Center

이경선 교수는 지난 4월 30일부터 5월7일까지 Spring Festival에 김상진, 강동석, 홍웨이 황, 김현아 교수등과 함께 참여하였고, 6월7일에는 Lincoln Center에서 금호 챔버뮤직 소사이어티 연주로 《드보르작 퀸텟》을 연주하였다. 또한 6월18-19일에는 텍사스 뮤직 페스티벌에 참가하여 Brian Suits와 Anthony Kitai와 함께 연주하였으며 7월 1일부터 17일까지 화음챔버 유럽연주 투어를 마치고 7월22부터 8월 1일까지 대관령국제음악제에 참여하였다.

백주영 교수, IBK챔버홀 김수빈과 듀오 리사이틀

Professor Ju-Young Baek presented a joint recital with Kim Subin at IBK Chamber Hall

백주영교수는 지난 3월 28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첼리스트 정명화와 함께 브람스의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이중 협주곡》을 W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협연하였다. 4월 20일에는 예술의 전당 IBK챔버홀에서 김수빈과 듀오 리사이틀을 가졌고 비에냐프스키 《카프리스》, 쇼스타코비치 《전주곡》 등을 연주하였다. 또한 4월 29일과 30일에 걸쳐 일본 효고현공연아트센터에서 일본 HPAC 오케스트라와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협연하였다. 또한 지난 6월 7일에는 Lincoln Center 앨리스 텔리홀에서 Francaix의 《Dixtour》을 금호 챔버뮤직 소사이어티와 함께 연주하였다.

최은식 교수, 미국 <International Viola Congress> 40주년 기념행사 초청연주회

Professor Ensik Choi was invited to perform at the <International Viola Congress> 40th Anniversary Concert in the United States

최은식교수는 지난 4월 11일 예술의 전당 IBK챔버홀에서 미국 오벌린대학 교수들과 《드보르작 피아노 퀸텟》을 연주하였다. 5월 2일부터 13일에는 바이올리니스트 강동석 교수의 감독아래 서울 스프링 실내악 페스티벌에서 브람스 《클라리넷과 현악 4중주를 위한 5중주 b 단조 Op. 115》와 쇼스타코비치 《피아노 5중주 g 단조 Op.57》, 베토벤 《현악 3중주 G 장조 Op.9중 No.1》등을 연주하였다. 5월 30일부터 6월 3일에는 미국 International viola congress 40주년 기념행사에 초청받아 마스터클래스와 연주회를 가졌다.

국악과

_ Department of Korean Traditional Music

정대석 교수, 거문고독주곡 《봄이 오다》 초연

Professor Dae-Seok Jeong's piece 《Spring is Here》 was premiered at Yu Yeongju's solo geomungo recital

지난 3월 13일, 한국거문고앙상블 창단 5주년기념 연주회에 정대석 교수 위촉곡 《거문고 합주를 위한 달무리 협주곡》이 초연되었다. 그리고 4월 19일 제83회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정기연주회 첫째날인, 19일에 《거문고협주곡 1번》을 연주하였으며 5월 10일, 유영주거문고독주회에서는 정대석교수 위촉곡인 거문고독주곡 《봄이 오다》가 초연되었다. 또한 5월 15일, 서울대학교 문화관 중강당에서 서울대 국악과 교수음악회공연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국악과 재학생 졸업생 및 석박사학생들의 관현악연주와 더불어 정대석 교수의 거문고협주곡 《수리재》협연이 있었다. 6월12일, 슬로베니아에서 슬로베니아 오케스트라단과 김성진선생 지휘로 또한 거문고협주곡 《수리재》 연주가 있었고 6월15일에는 크로아티아방송교향악단과 협연무대가 이어졌다.

임재원 교수, 서울시국악관현악단 제314회 정기연주회에서 《변조 두 개 주제에 의한 대금 협주곡》 초연

Professor Jae Won Lim performed a daegeum concerto at Seoul City Traditional Music Orchestra's 314th Concert

임재원 교수는 지난 4월 3일에 열린 서울시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청연'에서 이준호 작곡의 《변조 두 개 주제에 의한 대금 협주곡》을 초연하였다. 4월 12일 열린 이병욱과 어울림 창단 25주년 기념 및 마리소리예술원 건립기금 마련 공연에서 창단 멤버들과 함께 《천년만세에 의한 새울림》, 《검정고무신》등을 연주하였고, 5월 15일에 열린 국악과 교수음악회에서 이상규 작곡 대금 협주곡 《대바람 소리》를 연주하였다. 또한 6월 12일부터 19일까지 한 • 슬로베니아, 한 • 크로아티아 수교 20주년 기념 행사에서 12일에 슬로베니아의 류블라냐 오페라 오케스트라와, 15일에 크로아티아 라디오 텔레비전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협연하였다. 또 임재원 교수는 대전광역시외의 위촉을 받아 2012년 7월 1일부로 대전시립 연정국악원 상임지휘자로 취임하였다.

양경숙 교수, 우면당에서 <토요명품공연-명인프로그램> 공연

Professor Kyung sook Yang performed as a part of the National Gugak Center's Saturday Concert Master Performers series

5월 12일,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총5회의 연속공연 <토요명품공연-명인프로그램> 이 열렸다. 이날은 공연에 첫 번째 날로 《가즈회상》 공연에서 양경숙 교수는 7명의 연주자들과 함께 무대에 올랐다. 5월 15일 국악과 교수음악회에서는 《서용석류 해금산조 협주곡》을 연주하였고 5월 27일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는 <양경숙의奚琴> 공연이 열렸다. 본 공연은 양경숙 교수에 15번째 독주회로 《자진한잎 중수룡음(평릉, 계락, 편수대업1, 편수대업2)》, 《서도대풍류(염불, 타령시나위, 타령, 굿거리, 자진타령)》, 그리고 《지영희류 해금산조》가 연주되었다.

이지영 교수, 스웨덴 읍살라 Konsert & Kongress 초청 연주회

Professor Ji-young Yi presented a solo concert by invitation of Konsert and Kongress in Sweden

이지영 교수는 지난 4월 19일에 '제 83회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연주회'에서 창작악단과 협연을 하였고, 4월 20일에는 예술의 전당에서 있는 '2012 교향악 축제'에서 목표 교향악단과 협연을 하였다. 5월 5일에는 스웨덴 읍살라 Konsert & Kongress 초청으로 《이지영 가야금 연주회》가 있었다. 5월 15일에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교수음악회에서 작곡가 김대성의 가야금 협주곡 '매화'를 연주하였다. 6월 12에는 슬로베니아 류블라냐 SNG 오페라 오케스트라와 협연이 있었고, 6월 16일에는 크로아티아 라디오 방송 교향악단과 리진스키홀에서 협연을 하였다. 6월 28일에는 음악감독으로 있는 김해시립 가야금연주단의 제 27회 정기연주회가 있었다.

김승근 교수, 국악과 교수음악회에서 신작 《TAO in CAGE》 초연

Professor Sngkn Kim premiered his work 《TAO in CAGE》 at the 2012 Department of Korean Music Faculty Concert

지난 5월 15일 문화관 중강당에서 국악과 교수음악회에서 신작 《TAO in CAGE》를 SNU국악관현악단과 지휘자 김성진의 지휘로 초연하였다. 5월 31일부터 6월 3일까지는 문래예술공장에서 work in progress 프로젝트를 개최하였다. 국악과의 국악실내악, 창작국악세미나 수업의 수강생들이 중심이 되어 실험적인 연주회와 음악극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작곡가 Chou Wen-chung의 특강, 가톨릭대학교 환옥미 교수의 음악전시회 등이 이루어졌다.

Hilary V. Finchum-Sung 교수, 《The World of Music(new series)》 특별호의 객원편집자로 기사 게재

Professor Hilary Finchum-Sung both edited and contributed the “Forward” and an article to 『the world of music (new series)』

Hilary V. Finchum-Sung 교수는 지난 3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Annual Meeting에서 “Education and Intangible Heritage: Transmission and Reception in East Asia” 세션의 좌장을 맡았으며, 논문 《Teaching Heritage: Trials and Tribulations of Traveling Kugak Instructors》을 발표하였다. 또한 Finchum-Sung 교수는 2012년도 《The World of Music(new series)》 vol.1의 특별호 “Ensembles in the Contemporary Korean Soundscape 1”의 객원 편집자로 기사를 게재하였다. 더불어 <Forward>와 논문《Designing a Fresh Tradition: Young Kugak and Sonic Imaginings for a Progressive Korea》을 게재하였다. 또한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에 “The Rainbow Chorus: Performing Multicultural Identity in South Korea”를 출판하였다.

추모하는 마음으로 | Obituaries

姑 김순열 명예교수 E. Prof. Soonyul Kim



- 1943 일본 동경고등음악학원 피아노과 졸업
- 1947 - 85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 역임
- 1987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김순열 명예교수가 2012년 3월 20일 별세했다. 향년 92세.
 고인은 1920년 함경남도 원산에서 태어나 일본 도쿄 고등음악학원(현 국립음악대학) 피아노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음악대학 교수로 38년간 재직했다. 《마우리찌오 폴리니의 피아노 연주 예술》,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의 특징》 등의 논문을 저술했으며, 1997년 대한민국예술원 음악분과 회장을 지냈다.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대한민국예술원상, 국민훈장 모란장 등을 받았다.

姑 김정길 명예교수 E. Prof. Chung Gil Kim



- 1962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졸업
- 1972 독일 하노버 국립음대 수료
- 1983 - 1999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교수 역임

작곡가 김정길 명예교수가 2012년 3월 17일 질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79세.
 고인은 1933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 음악대학 작곡과를 졸업하고 독일 하노버 국립음대에서 수학한 뒤 서울대 음악대학 교수와 한국작곡가협회 이사장을 지냈다. 1986년 서울아시아계임, 1988년 서울올림픽대회, 1993년 대전엑스포, 1997년 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의 총괄음악감독을 맡았고 서울올림픽대회의 팡파르 음악을 작곡했다. 고인은 《8주자를 위한 추초문》과 《수여산》 등의 작품을 남겼으며, 임권택 감독의 영화 《만다라》와 《길소뜸》 등의 영화음악을 작곡해 대중상 영화음악상을 받았다.

姑 김성태 명예교수 E. Prof. Sung Tae Kim



- 1939 일본 동경고등음악학원 작곡부 졸업
- 1946 - 79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 역임
- 1973 제2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장
- 1991 대한민국예술원 회장

김성태 명예교수가 2012년 4월 21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102세.
 고인은 1910년 서울에서 태어나 연희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도쿄 고등음악학원에서 작곡을 전공했다. 귀국 후 지휘자 활동을 하는 한편, 1946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설립에 참여하여 서울대 음대 학장을 지냈다. 1930년대에 동요집 《새야 새야 파랑새야》를 통해 작곡가로 데뷔하였으며, 《동심초》, 《이별의 노래》 등 100곡이 넘는 가곡과 함께 많은 작품을 남겼다.
 대한민국예술원상, 국민훈장 모란장, 동백장 등을 받았다.

추모사

백수를 누리셨으니, 이제 떠나실 때가 되었음을 선선히 받아들일 수도 있으련만…….
 그 어떤 도전과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일평생 음악계를 위해 헌신하신 큰 스승을 잃은 이 순간, 저희는 마음 한 켠의 허전함을 달랠 길이 없습니다.
 선생님께 드린 그 어떤 상도, 그 어떤 찬사도, 그리고 가시는 길에 놓인 아름다운 꽃조차도 초라해 보이는 것은, 그 모든 것이 선생님의 삶 앞에서 빛을 잃었기 때문이겠지요.
 작곡가로서, 지휘자로서, 그리고 교육자로서 우리 음악계에 누구도 지울 수 없는 발자취를 남기신 선생님을 이제 떠나 보내드릴 시간이 왔습니다.
 가르침이 필요해도 배울 수 없고, 그리워도 뵈 수 없는 시간이 왔음을 이제 받아들여야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설립하신 저희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으로 인해, 남기신 주옥 같은 작품들로 인해,
 저희는 선생님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음악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계실 것입니다.

2012년 4월 25일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학장 김 영 욱

|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

세계음악 / Prof. Hilary V. Finchum-Sung

Music of the World

Department of Korean Music Professor Hilary V. Finchum-Sung teaches the course "Music of the World". The course is taught in English for all liberal arts students for elective credits, and, true to its name, students from all over the world and from a variety of majors enroll in the class each semester. The class takes students on a journey through the music and cultures of Africa, Latin America, Oceania, India, China, Eastern and Western Europe, Southeast Asia, among others, and aims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music and cultural identity through an ethnomusicological lens.



국악과 힐러리 핀첨 성(Hilary V. Finchum-Sung) 교수의 '세계음악'은 음대에서 진행되는 가장 이색적인 강의 중 하나일 것이다. 그 이름에 걸맞게 다양한 국적과 전공을 가진 수강생들을 만나볼 수 있는 세계음악은 기초 교육원의 개설로서 서울대학생 모두에게 열려있는 영

어로 진행되는 교양강좌이다. 이 수업은 한 학기에 걸쳐 아프리카, 라틴, 오세아니아, 인도네시아, 중국 등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을 음악인류학적 관점에서 탐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스스로의 음악적 정체성을 되돌아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강의실을 찾았을 때는 마침 핀첨 성 교수가 직접 아일랜드 민속 음악을 연주해 보였다. 그로부터 한 눈에 이 수업이 직접적인 청취와 체험을 중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년째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핀첨 성 교수는 세계음악을 "음악이 청자의 경험과 얼마나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지, 우리의 삶과 음악이 어떠한 관계이며 음악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수업이라고 소개했다.

이 수업의 가장 주목할만한 점은 리스닝 저널(listening journal)을 쓰는 것이다. 이는 일기와 유사하게 매주 주제가 달라지는 음악을 듣고 그에 대한 짧은 감상을 적는 것으로, 음악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들도 쉽게 쓸 수 있도록 음악의 특징과 인상 그리고 음악에 대한 묘사에 중점을 둔다. 수업에서는 이러한 학습방법을 통해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새로운 음악을 청취하는 습관을 만들고 있었다.

여기에 더하여 음악적 정체성(musical identity)에 대한 짧은 글쓰기 과제가 주어진다. 음악적 정체성이란 음악을 통해 반영된 개인적 혹은 사회적 정체성을 의미한다. 우리는 타인이 듣는 음악을 통해 그 사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며, 반대로 음악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표현할 수 있다. 수업에서는 글쓰기를 통해 자신이 즐겨 듣는 음악이 어떻게 자신을 표현하는지를 설명함으로써 스스로의 음악적 정체성을 확인한다.

이 외에도 최지연(국악 석사·12) 조교는 수업의 특징으로 "세계 곳곳의 고유한 토착음악과 대중음악, 춤과 노래들을 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수업시간에 음악을 따라 불러보기도 하는 생생함"을 꼽았다. 또 수강생 권정은(국악과 이론전공·09) 학생은 "평소 다양한 지역의 음악에 관심이 많았는데, 많은 영상 자료를 통해 그것들을 실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던 점이 좋았다"고 말하며, "과제를 통해 나의 삶이 음악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수강 소감을 밝혔다.

'세계음악'은 굳이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문화와 음악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유익한 강의였다. 매 학기 열리는 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다채로운 음악을 체험하고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이제 '세계음악'을 통해 음악으로 세계여행을 떠나보자.



| 심표는 감동이다! |

피아노문헌세미나 / 김귀현 교수

Piano Literature Seminar

Pianist and Professor Kwi-hyun Kim's "Piano Literature Seminar" works in tandem with the instrumental classes offered by the Master's program with the aim of refining an understanding of musical practice and performance aims. Meant for mature performers, true to its name the class teaches practice skills and thought processes often elusive to performers and offers a chance for players to strengthen their theoretical foundation for performance.

피아니스트 김귀현 교수의 '피아노문헌세미나'는 기악과 피아노전공 석사과정에 개설된 과목으로 실기와 이론이 접목된 수업이다. '피아노문헌세미나'에서는 학생들이 매 시간 자신이 준비한 곡을 직접 연주하고 설명하는데 이러한 수업은 피아노 전공 학생들에게 이론적 지식을 습득하면서 실기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연주자로서 피아노에 대한 깊은 안목을 배양할 수 있게 해준다.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김귀현 교수(기악과)는 " '피아노문헌세미나'가 다른 수업과 구별되는 점은 매주 새로운 작품을 모든 사람이 함께 고민하는 수업이라는 것입니다. 전문 연주자가 되기 위해 학생들이 대부분 자신의 연습과 연주에만 집중하지만 이 수업에서는 다른 사람의 연주를 듣고 자신의 연주와 비교해 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악보에 표현된 작곡가의 의도에 대해 여러 사람과 함께 생각해 봅니다." 라고 수업을 소개했다. 이렇듯 '피아노문헌세미나'에서는 연주자들 간의 활발한 교류와 토론식 수업을 통해 피아니스트로서 자신의 연주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소리에 대해 끊임없이 탐색한다.

'피아노 문헌 세미나'를 수강하고 있는 최현호(피아노 석사·12) 학생은 "주1회 2시간 수업이지만 연습량과 공부량이 엄청 납니다. 2시간 수업인데 준비는 그 5배를 넘게 하죠. 학부 때는 주로 혼자 연습하고 레슨을 받았는데 이렇게 여러 사람과 함께 피아노에 대해 이야기 하고 토론을 하면서 연주의 새로운 면을 발견합니다."라고 수강 소감을 밝혔다. 그리고 전지훈(피아노 박사·12) 학생은 "지금까지 피아노의 테크닉에 집중했는데 이 수업에서는 소리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냥 지나쳤던 기본적인 박자, 마디, 화성의 변화 등이 어떻게 음악으로 표현되는지 그리고 소리가 없는 심표에서 청중이 어떻게 감동을 느끼는지도 생각해 봅니다." 라는 말에 성장해가는 연주자의 면모를 느낄 수 있었다.

덧붙여 김귀현 교수는 "작년에 학생들이 수업에서 공부한 레퍼토리로 예술관 콘서트 홀에서 음악회를 열었는데, 함께 대화하고 고민했던 작품이 직접 무대로 올려지니 감동이 남다르더군요. '음악은 마음의 느낌(感)을 동(動)한다.'... 평소 수업시간에도 늘 '음악은 감동이다! 심표는 더 감동이다!'라는 말을 자주하는데 무엇보다 학생들 스스로 연주회를 하고 싶어 하는 모습에서 음악에 대한 저의 열정과 생각이 학생들에게 잘 전해진 것 같아 무척 기쁩니다."라는 말에 수업에 대한 보람이 느껴졌다.

피아노는 다른 어떤 악기보다 많은 레퍼토리를 갖고 있고 많은 연주자가 있기에 피아노를 전공하는 학생들의 토론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누구보다 음악을 사랑하는 교수와 학생들의 끊임없는 질문과 소리에 대한 고민이 강의실을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채웠다. 이론과 실제, 연주자와 청중의 관점이 함께하는 '피아노문헌세미나'를 통해 이들이 더욱 훌륭한 연주자로 거듭나길 기대해본다.



| 부모님, 감사합니다 |

어버이날 신입생 학부모 초청연주회

Parents Invitation Concert

This last May 8th on Parents' Day in the Concert Hall, a special concert was presented in honor of students' parents. This performance was presented as a part of the orientation for the parents of first-year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ents. Students from the Department of Korean Music performed a court ensemble piece and students from the Instrumental Department performed popular orchestral works together with students from the Vocal Department. At the close of the performance, the Parents' Day song 《Parents' Grace》 was sung, a performance which brought tears to the eyes of many in attendance. The entire performance proved a precious time for both students and their parents, and a fitting gift in honor of the parents who have done so much to ensure the success of their children.



지난 5월 8일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콘서트홀에서는 어버이날을 맞아 학부모 초청 연주회가 열렸다. 학사, 석사, 박사 신입생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콘서트는 학부모들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으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지난해까지 학부모 초청은 학교 전체 단위에서 오리엔테이션과 겸하여 이루어졌기에, 이번처럼 어버이날을 기념하여 사은의 마음을 담은 공연과 함께한 것은 무척 특별한 행사였다. 국악과 학생들이 준비한 정악 합주가 이 날 공연의 첫 문을 열었고, 뒤이어 가야금과 거문고전공 학생들이 국악 현악기들의 아름다운 앙상블을 들려주었다. 국악과 학생들의 연주가 끝난 뒤에 관현악과 학생들의 오케스트라 연주가 이어졌다. 오케스트라 연주 또한 서울음대 오케스트라의 뛰어난 기량으로 관객들에게 수준 높은 음악적 체험을 하게 했다. 계속해서 성악과 학생들의 합창으로 공연은 이어졌고, 관객들로 가득 찬 객석은 매 순간 뜨거운 호응을 하며 연주 감상에 집중했다.

이 연주회에 참석했던 작곡과 이론전공 신입생 우혜원 학생의 어머니 이은주 씨는 “이 공연이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지 않더라도 참으로 인상 깊은 공연이었습니다. 지루함 이라고는 티끌만치도 없었으니까요. 대한민국 최고의 음악가들다운 공연이었습니다.” 라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이날 공연에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마지막 순서로 《아버이 은혜》가 합창될 때였다. 음악대학에 신입생으로 들어온 자녀들이 지금까지 자신을 키워주신 부모님을 위해서 음악을 연주하는 감동적인 순간, 공연장 안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뜨거운 감동으로 넘쳐났다. 몇몇 학부모들은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으며 뜨거운 박수로 그 음악에 화답했다.

음악으로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말하는 이번 공연은 자녀와 부모 모두에게 아름다운 시간을 선사해 주었다.

| 새로운 비전을 위하여 For the new vision |

음악기부하는 그 순간, 기부인들은 누구보다 행복해 합니다.
서울대학교발전기금의 사명은 바로 그 행복을 찾아 선물해 드리는 일이 아닐까 합니다.
나누는 보람과 기쁨을 누리는 기부문화가 좀 더 널리 퍼져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2012 상반기 발전기금 출연자 (가나다순)

출연자명	납입금액	납입일자
김규동 작곡과 교수	150,000 (월 50,000원)	2012-04-17~6-15
김미영 학부모	600,000 (월 100,000원)	2012-01-27~6-26
박민영	1,000,000	2012-03-22
안병두	2,000,000	2012-02-29
오재철	600,000	2012-03-17
이돈응 작곡과장	300,000 (월 50,000원)	2012-01-17~6-15
이신우 작곡과 교수	300,000 (월 50,000원)	2012-01-17~6-15
전상직 음대부학장	300,000 (월 50,000원)	2012-01-17~6-15
최경환 기악과 교수	300,000 (월 50,000원)	2012-01-17~6-15
최석호 풍강산업(주) 대표	600,000 (월 100,000원)	2012-01-10~6-13
최희연 기악과 교수	2,000,000	2012-03-09

** 발전기금 참여안내

무통장입금, 신용카드, 휴대폰, 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무통장입금 (예금주: 서울대발전기금)

☎ 농협 079-17-000136 ☎ 신한 100-014-328209 ☎ 우리1006-601-280134

-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 서울대학교발전기금 홈페이지 www.snu.or.kr에서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유증 및 부동산 등 현물자산 기부를 희망하실 경우 담당자가 방문 상담해 드립니다.

** 음악대학 또는 특성화학과를 지정해서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최석호 대표이사님 가족

| 작은 정성을 모아 Every Little Helps |

음악대학의 발전을 매달 위해 매달 꾸준히 10만원씩 발전기금을 출연하고 계신 두 분의 학부모님을 만나 뵈었다.
학부모님들은 출연금액이 큰 액수는 아니지만, 작게나마 음대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출연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밝혀주셨다.

최석호 학부모님 풍강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풍강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석호 님은 서울대 음대 작곡과 이론전공을 졸업하고 현재 동대학원에서 음악교육을 공부하고 있는 딸 최예은(협동과정 음악교육전공 석사·12) 양의 아버지다. 예은 양이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남다른 소질을 보였고, 그러한 재능은 지켜보는 부모로서도 신기한 경험이었다며 이야기를 이어가던 중, 어떠한 계기로 발전기금을 출연하게 되었는지 여쭙보았다.

“딸 예은이가 대학에 입학한 후 발전기금에 관한 안내문을 받아보았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딸이 다양한 학교시설로 인해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해나가는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더불어 민족의 미래를 이끌어 갈 젊은이들을 후원하고자 발전기금을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의 운영진 여러분들께서 후원자들의 마음을 읽어 사정에 따라 필요한 곳에 유익하게 사용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신만이 만족하는 음악을 하기보다 대중이 즐길 수 있고, 마음에 평안을 안겨주는 음악을 하는 것이 음악가의 덕목이라고 생각한다는 그는 이어 미래의 음악계를 이끌어갈 차세대 음악가들로서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긍정적인 생각과 자세를 잃지 않고 언제나 맑은 바에 최선을 다해나가기를 바란다며 마지막으로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물론 음악을 전공하며 힘들고 지칠 때가 많을 것입니다. 끝없는 반복훈련과 이를 통해 또다시 자기 것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임에 분명하지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행복을 선사하는 전도자의 역할을 하는 자로서 소명감을 가지고 잘 극복해나가서 훗날 훌륭한 음악가로 크게 쓰임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김미영 학부모님

김미영 님은 2010년 서울대 음대 기악과(피아노 전공)를 졸업한 후 도미하여 신시내티 음대(The University of Cincinnati College-Conservatory of Music) 석사과정을 마친 딸 박신영 양의 어머니다. “처음 발전기금을 출연하게 된 계기는 신영이가 장학금을 받은 후 저도 학교를 위해 무언가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이후 음대의 연습실을 가보게 되었고, 이곳에 자녀를 둔 부모로서 학생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연습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매달 조금씩이라도 힘을 보태고자 출연금을 내게 되었습니다.”라는 발전기금 출연 계기를 밝히며 인터뷰를 시작한 김미영 님은 기부금이 연습실의 피아노를 교체하는데 사용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덧붙였다.



김미영 학부모님과 박신영 양

어려서부터 신영 양이 피아노를 좋아하였고, 본인 스스로 전공하기를 원하였다는 김미영 님은 신영 양이 올해 일리노이 대학(University of Illinois) 박사과정에 전액장학생이자 펠로우십(fellowship) 수혜자로 입학하게 되었다는 낭보를 전하였다. 또한 앞으로도 신영 양이 음악가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인내’와 ‘노력’의 덕목을 잃지 말 것 당부하기도 하였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장시간의 연습과 자신과의 싸움으로 힘들어하는 신영이를 보고 있으면 안쓰러울 때가 많지요. 하지만 이러한 과정 모두가 신영이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신영이 뿐만 아니라 음악을 공부하는 모든 학생들이 음악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고 언제나 음악 안에서 행복과 기쁨을 만끽하기를 뒤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김미영 님이 학교에 바라시는 점은 세계적인 차세대 음악가를 양성하는 대학으로서 조금 더 좋은 시설을 갖춘 음대로 성장하는 것이었다. “저 또한 자그마한 힘이라도 보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라는 마지막 말씀이 큰 힘이 되었다. 이러한 학부모들의 관심과 소망을 담아 나날이 발전해 갈 서울대 음악대학을 기대해본다.

글 | 음악춘추 박진하

예술가의 집 Monet in Giverny



Prof. Shinuh Lee

모네의 수련 그림과의 참 만남을 갖게 된 것은 작년 초 뉴욕 현대미술관 모마(MoMA)에서의 일이다. 서울대학교에 재직한지 12년 만에, 연구년을 얻어 일 년간 머물게 된 뉴저지 몬클레어(Montclair)에서의 새로운 생활과 환경에 막 적응하고 있던 시기였다.

분주한 마음과 생활을 뒤로 하고 찾아간 미술관 모마. 그러나 피카소, 마티스, 달리, 프리다 칼로, 앤디 워홀 등등, 미술사 속 기라성 같은 화가들의 수많은 작품들이 걸려 있었지만 이날은 유독 그 어떤 작품에서도 별다른 개인적 인상이나 감흥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한 작품을 미처 감상할 틈도 없이 연이어 전시된 대작들의 엄청난 위력과 아우라는 미술관 안에 밀려들어온 세계 각국으로부터 온 수많은 관광객들과 함께 매우 혼란스럽게 뒤섞이며 서로 충돌하고 있었다. 이때 관광객에 밀려 자의반 타의반 들어오게 된 곳이 모네의 수련 그림이 걸려있던 자그마한 방이다. 평소 음악이나 미술에서나 동일하게, 인상주의 작품들에 대단한 감동은 느끼지 못했던 나로서는 이날 마주한 모네의 수련 그림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아주 다른 차원의 것이었다. 한 벽면을 모두 채운 모네의 수련 그림 한 편.... 뉴욕 맨하튼 도심 한 복판에서 진정으로 고요하고 신비로운, 내가 맛보지 못한 그 어떤 신비한 세계에 살며시 들어가 본 느낌이랄까!

이 날 모네의 그림 한편과의 만남은 결국 7월 말 프랑스 남부 카잘스 음악제에서의 작품 초연 후 예정되었던 우리 가족의 프랑스 여행 일정을 모두 바꾸어 버리는 계기가 되고 말았다. 모네가 그의 말년 20년 동안 머무르며 그림을 그렸던 지베르니(Giverny) 그의 집과 정원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사진 | 유혜림(작곡)



생 라자르 역에서 베르농 행 기차를 타고 50여분, 그리고 다시 버스를 타고 약 15분, 지베르니 모네의 집은 아름다운 꽃과 나무로 둘러싸인, 꿈속에서나 나올듯한 동화 속 집과 같은 곳이었다. 모네는 이곳에서 정원사들을 고용하여 정원을 가꾸며 그림을 그렸다. 정원 속 꽃과 나무, 수련을 키우기 위해 물을 끌어다 만든 인공 연못과 일본식 아치형 다리 그리고 수련은 그의 말년 그림 속 소재였고 정원은 그의 아틀리에였다. 매일 매일 모네는 이 곳에서 수없이 많은 수련 그림을 반복해서 그리고 또 그렸다. 지베르니가 나에게 던져 준 가장 흥미로운 점은 프랑스 파리 미술계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 물론 이 시기 모네는 이미 화가로서 명성을 얻은 뒤였지만 - 그가 오로지 여기서 정원을 가꾸는 일과 그 정원을 소재로 그림 그리는 일에만 전념했다는 사실이다. 그것도 이십년씩이나! 루앙 성당이나 건초더미, 해돋이 등등 비교적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대상을 그렸던 그의 젊은 날에 비해 말년에 그려진 작품 속 소재는 대부분 그가 정성을 다해 가꾸던 정원 속 꽃과 나무, 다리와 수련뿐이다. 매우 제한된 소재를 끈질기게, 그것도 이십년 동안이나 반복해서 그렸다. 지루하지 않았을까? 매일 한결같이 정원을 가꾸고, 그 정원을 오래도록 반복해서 그리고 또 그리고....

모네의 말년 수련 그림들은 그가 노년에 백내장을 앓았던 탓에 물체의 색과 형상이 다소 어두워지고 흐릿해져서 마치 추상화 같은 인상을 주기도 한다. 그 중 어떤 수련 그림은 마크 로스코의 추상화 속 사각의 색채 덩어리에서 느껴지는 그 어떤 인상과도 비슷하다. 과거 별다른 감흥을 느끼지 못했던 모네의 그림에서 내가 새삼스레 특별한 '무언가'를 느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나는 지베르니 그의 집에서 그 이유를 찾고 싶었다. 어찌 보면 현실 도피적이거나 철없어 보이기까지 하는 그의 생애... 그러나 지베르니 그의 집에서 그가 오직 할 수 있었던 정원 가꾸기와 그림 그리기를 마지막까지 반복했던 모네...

나는 모네를 통해 자연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을 얻었고 그의 말년 수련 그림을 통해 한 가지 일에 평생을 바친 예술가의 노년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고요하고 깊은 그의 내면(內面)의 울림을 보았다. 모네의 작품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젊은 시절 작품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창조주의 위대한 피조세계, '자연'을 오래도록 가꾸고 연구하고 반복해서 그림으로 인해 얻어진 그의 깊은 내면의 깨달음과 성찰을 느꼈기 때문이리라.

모네는 소용돌이치는 세상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고작 그림 그리는 일 뿐이라는 자조적인 고백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모네의 눈과, 그의 손의 반복적 노동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연에 계시된 오묘한 아름다움과 놀라운 평화를 누리고 있는가!

이신우(작곡과 교수)



새롭게 듣기



When I try to reflect on my one-year stay as an exchange student at College of Music, Seoul National University, my first experience with gugak(Korea Traditional Music) comes to my mind: I attended a lecture by SNU's Prof. Dr. Yi, Ji-young introducing gayageum for composition students at Mannheim University of Music in 2009. Afterwards I was left with the main impression of a kind of music, which is full of vitality creating a rough yet detailed timbre. In fact this first approach to gugak should be crucial for my decision to visit Korea.

I'm studying composition at Mannheim University of Music and Performing Art, Germany with Prof. Dr. Sidney Corbett and after the experience mentioned above as well as working together with students coming from Korea to study European music I started wondering how the musical roots of this country full of skilled musicians might sound like. Due to the partnership between both Universities, today's various and wonderful possibilities to study gugak at SNU and The Baden-Württemberg scholarship for students, the final steps to start my year as exchange student were done easily.

Although I was listening to traditional Korean music in several concerts in Germany before my stay in Seoul, I basically didn't know what would expect me by getting closer to it. Forgetting my listening habits to some degree - or to be more correct: at least trying to do so - in order not to have expectations I am used to for many years is a way I very often approach music but

experienced it from a new perspective by learning about gugak since I was facing a rich yet for me unknown music culture which is very different to most European music in its nature and structures.

As a student in composition of traditional Korean music in the class of Prof. Kim, Sngkn I soon got the best conditions at College of Music I could think of: While I appreciated some general education about gugak and learning a little bit to play several traditional instruments, my main study focused on working with musicians together in order to learn about how to perform on specific instruments resulting on the one hand in a lively process during which both composer and performer learned from another and their musical background. On the other hand almost all projects were concluded with what most music and the work on it needs: a performance.

Despite this quite intense contact with gugak, it would be presumptuous to claim that I could know about it well after this short period of study. But what I have learned and experienced about Korean traditional music already remains in my ears and influences my musical way of thinking although now - while still being in Seoul - this experience is still too close and I will probably realize the influence of Korean music more clearly with the distance back in Europe in order to carry on my personal dialogue between the two music cultures.

이색전공 Unique Major

음악신경과학 Neuroscience of Music



음악신경과학은 음악심리학의 분과로서 인간의 신경 해부 구조가 음악의 지각, 기억, 인지, 학습과 같은 활동에 관여하는 과정을 밝히는 학문이다. 일반적인 음악심리학 연구에서는 음악에 대한 생각을 실험참가자들로부터 조사하여 그 답안들을 종합해 결론을 얻는 반면, 음악신경과학에서는 이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양한 연구 방법론들을 통해 실제로 음악을 들었을 때의 뇌의 반응 영역과 시간을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음대에서 음악신경과학을 전공하기 위한 수업으로는 작곡 이론 전공 대학원에 개설된 음악심리학과 음악신경과학 강의를 있으며, 학업을 해나가면서 필요하다면 심리학과를 비롯한 타 학과의 수업을 청강하거나 수강할 수도 있다. 최근에는 서울대학교 의대와 협력하여 고가의 실험용 장비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단순히 기존의 지식을 답습하는 것이 아닌 공동연구를 통하여 본격적으로 독창적인 실험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학부 시절 피아노를 전공하고 지금은 서울대병원 MEG(뇌자도 측정)센터에서 음악신경과학을 연구하고 있는 김찬희 연구원은 2010년부터 화음진행 자극을 우리의 뇌가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를 해오고 있다. 그녀는 음악신경과학의 매력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이 분야에는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야든 궁금한 점이 생기고 가슴을 설레게 한다면 과감히 뛰어들어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김찬희 연구원
서울대병원 MEG센터

법음악학 Musicology of Law



'법음악학'이라는 생소한 용어는 기초법학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법철학'과 '법사회학' 등의 학문들은 특정 법역에 국한되지 않고 법학의 기초를 이루는 기초법학에 속하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기초법학의 영역을 넓히는 연구들이 점차 진행되고 있다. '법음악학' 역시 이와 같은 취지로 기초법학의 연구영역을 넓히고 법학과 음악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직 그 틀이 잡혀있지 않은 법음악학 연구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기본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미국 로스쿨의 저널이나 영국의 과거 음악시장에 관한 판례에 법학과 음악학 간의 관계에 대한 기초법학적인 쟁점이 숨어있는 경우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연구를 위해서는 많은 부분을 새롭게 재구성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학문적 진보를 성취하는 것이 법음악학 연구자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라 할 수 있다.

학생설계전공으로 법음악학을 전공하고 있는 김경한(법학부·08) 학생은 음악의 저작권법에서 시작하여 독일 법철학과 음악 간의 관계를 연구하였고, 앞으로는 '정의와 음악', '규범과 음악'과 같은 추상적인 연구와 '디지털 저작권법과 음악'과 같은 실제적인 연구를 함께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는 "법과 음악 간의 관계에 관심이 많은 후배님이 계시다면, 주저 없이 저와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보다 많은 이들이 이 새로운 분야에 관심을 갖기를 희망했다.



김경한
법학부·08

2012년 1학기 콩쿠르 입상자



①오연택 ②김대윤 ③김정훈 ④박다울 ⑤이지애 ⑥강석원
⑦윤지연 ⑧이동민 ⑨이진현 ⑩인소향 ⑪최소리

이탈리아 부세토 베르디 국제 성악 콩쿠르	1위	김정훈 (성악 · 09)
제38회 중앙음악 콩쿠르	1위	강석원 (클라리넷 · 10)
	1위	인소향 (피아노 · 10)
	1위	박강준 (작곡 · 06)
	2위	윤상아 (성악 · 07)
	2위	석정엽 (성악 · 08)
	3위	윤지연 (바이올린 · 10)
	3위	오연택 (피아노 · 12)
2012 Travel Grant Award	입상	이진현 (피아노 · 09)
	입상	이시현 (피아노 · 10)
	입상	박경선 (피아노 · 11)
2012 음악춘추 콩쿠르	1위	이재명 (성악 · 10)
	2위	권상미 (성악 · 10)
	1위	황예진 (피아노 · 10)
제44회 서울창작음악제	입선	김지현 (작곡석사 · 10)
	입선	김새암 (작곡석사 · 11)
	입선	유리나 (작곡석사 · 12)
제15회 한국소평 콩쿠르	1위	김선화 (피아노 · 11)
	3위	박연민 (피아노 · 10)
제42회 삼익 콩쿠르	3위	김은아 (피아노 · 12)
2012 Music in the Mountains festival (Young artist competition)	대상	박연민 (피아노 · 10)
	2위	홍유진 (피아노 · 12)
신영옥 콩쿠르	1위	이동민 (성악 · 09)
제18회 전국수리음악 콩쿠르	2위	정아영 (성악 · 09)
	2위	이재명 (성악 · 10)
	장려상	권상미 (성악 · 10)
2012 전국독일가곡 콩쿠르	2위	박희림 (성악 · 10)
서울오케스트라 콩쿠르	최우수상	최은 (성악 · 10)
2012 세일한국가곡 콩쿠르	2위	박해상 (성악 · 07)
	3위	성이현 (성악 · 석사)
제35회 창악회 작곡 콩쿠르	우수상	김지현 (작곡석사 · 10)
제22회 대구국제현대음악제	입선	신나리 (작곡석사 · 11)
전주 전국고수대회	2위	최소리 (국악타악 · 석사)
제10회 서울가야금대회	최우수상	이지애 (가야금 · 석사)
	우수상	박다울 (가야금 · 10)
제21회 우륵가야금경연대회	대상	김철진 (가야금 · 11)
제32회 온나라국악경연대회	금상	김용성 (아쟁 · 11)
	금상	이서영 (가야금 · 11)
	은상	김한솔 (거문고 · 09)
	동상	김보들샘 (피리 · 10)
	동상	이진우 (판소리 · 11)
제28회 동아국악 콩쿠르	금상	안건용 (대금 · 08)
	금상	박훈정 (해금 · 10)
	금상	박다울 (거문고 · 11)
	금상	김대윤 (정가 · 12)
	은상	김용성 (아쟁 · 11)
	동상	박진형 (피리 · 석사)
	동상	김철진 (가야금 · 11)
전국난계국악경연대회	1위	홍정희 (해금 · 10)
승달국악대제전	대상	김한솔 (거문고 · 09)

미국 샌프란시스코 오페라단 주역 데뷔 소프라노 이해정



"The evening's most dazzling performance came from soprano Hye Jung Lee, just two years out of the Merola Opera Program, in a career-making triumph as Madame Mao. With its aggressive, almost shrieky high notes and sinewy vocal leaps, this is music that is designed to be practically unsingable—a Queen of the Night for the 20th century—and yet Lee made it seem technically easy, and gave it a fierce, gleaming beauty as well." —San Francisco Chronicle

Debut with the San Francisco Opera, Soprano Hyejung Lee

2006 Vocal Department graduate Soprano Hye Jung Lee performed the role of Madame Mao Tse-Tung for the San Francisco Opera's production of composer John Adams's opera *Nixon in China* from June 8th to July 2nd, 2012. She is currently receiving praise as the music industry's new opera star. For the next opera season, Lee is already slated to perform in the Florida Lyric Opera's Young Artist Program's production of Mozart's *Magic Flute*.



2006년 본교 성악과를 졸업한 소프라노 이해정 양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오페라단(San Francisco Opera)에서 2012년 6월 8일부터 7월 2일까지 공연된 존 애덤스(John Adams) 작곡 오페라 *Nixon in China*에 주역인 마오쩌둥 부인(Madame Mao Tse-Tung) 역을 맡아 현지 언론과 음악계의 극찬을 받으며 미국 오페라 무대의 새로운 스타로 주목을 받았다. 이해정은 고난도의 콜로라투라 테크닉을 요하는 마오 부인 역을 훌륭히 소화 해냄으로써 미국 굴지의 일간지인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San Francisco Chronicle)지로부터 "오늘 공연에서 가장 빛나게 만든 주인공은 소프라노 이해정이다. 그녀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어려운 고음과 엄청난게 넓은 음역 등을 기교적으로 쉽게 처리 하며 마오 부인 역에 힘있고 빛나는 아름다움을 부여했다"라는 극찬을 받았다. 지난 해 12월 카네기 홀에서 바하의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의 독창자로 데뷔하여 뉴욕타임즈 지로부터 "감미로운 음색을 지녔으나 오케스트라를 뚫고 나가는 힘을 지닌 가장 뛰어난 성악가"라는 받은 이해정은 다음 시즌부터 플로리다 리릭 오페라(Florida Lyric Opera)의 젊은 예술가 프로그램(Young Artist Program)에 발탁되어 모차르트의 *마술피리* 등을 연주할 예정으로 있다.

수상자 인터뷰

이탈리아 부세토 베르디 국제 성악 콩쿠르 1위 테너 김정훈

Winner of the 50th International Verdi Vocal Competition, Tenor Jung Hoon Kim

Tenor Jung Hoon Kim won the 50th International Verdi Vocal Competition in Italy on June 17th. This is the first time a tenor has secured the top spot since 1963, and Kim made history as the youngest male winner on record. In the future, Kim hopes to perform dramatic vocal roles like that of *Tosca*'s Cavaradossi, *Trovatore*'s Manrico, and *Un Ballo in Maschera*'s Riccardo.

2012년 6월 27일에 막을 내린 제 50회 이탈리아 베르디 국제 성악 콩쿠르, 올해의 우승자는 바로 서울음대 4학년에 재학중인 김정훈(성악·09) 학생이다. 이 대회에서 테너가 1위에 오른 것은 1963년 이후 처음일 뿐만 아니라, 그는 최연소 남성 우승자 기록도 세웠다. 심사위원장이었던 바리톤 레오 누치(Leo Nucci)에게서 "어떻게 스물네 살이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느냐"라는 극찬을 받기까지 한 김정훈 군을 음악대학에서 만나보았다.

수상소감은?

일단 너무 기쁘고 아직도 얼떨떨 합니다.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하게 될지, 무척 설레지만 동시에 걱정도 됩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니까요. 선생님들께 배운 것 중 어떤 것이 가장 기억에 남았나? 선생님의 말씀은 거의 모든 것이 다 기억에 남는데요. 그 중 음악을 더 정확하게, 그 안에서 더 부드럽고 더 아름답게 하라는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마지막 무대에 섰을 때 소감은 어땠는지?

굉장히 설레었고 기분 좋은 떨림이 있었습니다. 콩쿠르였지만 마지막 무대는 연주회 형태였기 때문에, 이태리의 노래를 이태리사람들 앞에서 부른다는 것이 굉장히 한편으론 신나고 설레는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무대에서, 어떤 작품을 연주해보고 싶나?

어느 성악가들이나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세계 3대 오페라 극장인 이태리의 라 스칼라(La Scala), 영국의 코벤트 가든 오페라 극장(Covent Garden Royal Opera House), 미국의 메트로폴리탄(Metropolitan) 극장을 얘기 할텐데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노래해보고 싶은 작품은 푸치니의 *라 보엠*, *토스카*, *투란도트* 와 베르디의 *일 트로바토레*, *가면무도회*, *오셀로*입니다. 테너로서 제 목소리의 특징은 예쁘거나 가볍고 로맨틱한 소리에 가까운 편은 아니고요, 힘이 있고 드라마틱한 소리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스카*의 '카바라도시 Cavaradossi' 나 *일 트로바토레*의 '만리코 Manrico', *가면무도회*의 '리카르도 Riccardo' 같은 역할을 연기해보고 싶습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성향이 시대의 혁명가이거나, 왕, 장군의 역할 같은 리더십이 강한 캐릭터라는 점이고요, 또 그런 역할이 어울린다는 평가들을 들어왔습니다.

음악가로서 최종 목표는?

음악가로서 저에게 주어진 이 재능을 잘 사용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음악가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 더 음악에 정진하고 또한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Congratulations!!

- 고은애 (바이올린 • 08) 통영아카데미 콘서트 초청연주
금호아트홀 아름다운 목요일 시리즈 초청연주
- 김봄소리 (바이올린 • 08) 부산시향 제482회 정기연주회 협연
부산시향 중국 순회연주(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협연
- 최정현 (바이올린 • 08)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박사학위 취득
『J.S.Bach의 Sonatas for Solo Violin 중 동일한 음가의 연속으로 이루어진 악장의 프레이징 연구』
- 조윤정 (바이올린 • 07)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박사학위 취득
『바로크 현악곡의 해석과 연주 - J.S.Bach의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 푸가악장을 중심으로』
- 김지훈 (베이스 • 03) 영국 로얄 오페라 하우스 영아티스트 프로그램 《라보엠》, 《에프게니 오네긴》, 《마직》, 《시몬 보카네그라》 출연
- 조가현 (바이올린 • 02) 막스로스탈 국제 콩쿠르 바이올린 부문 1위
- 송윤신 (바이올린 • 00) 디트로이트 심포니 오케스트라 콘서트마스터 취임
김택수 (작곡 • 03) '양상블 모데른', '양상블 앵테르콩탕포랭'에 의해 작품발표
홍석원 (작곡 • 01) 독일음악협회 독일의 차세대 지휘자 10인으로 선정
지중배 (작곡 • 01) 독일 트리어 시립오페라극장 및 트리어필하모닉오케스트라 수석 상임지휘자 취임
제4회 독일 오페레타 지휘자상 수상
- 손지혜 (소프라노 • 99) 프랑스 파리, 스트라스버그 페스티벌, 이태리 렛쵸 에밀리아 극장,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오페라극장 등에서 「라인의 황금」, 「발퀴레」 주역 출연
- 이자람 (판소리 • 98) 서울뮤지컬페스티벌 예그린어워드 연기예술부문 여우신인상
- 조은화 (작곡 • 92) 베를린 한스 아이슬러 국립음대 출강
- 전승현 (베이스 • 92) 독일 성악가의 최고 영예 '궁정가수' 칭호 수여
- 류재준 (작곡 • 89) 폴란드 고주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상주 작곡가 임명
- 진은숙 (작곡 • 81) 제22회 호암상 예술상 수상
- 이동복 (대금 • 76) 국립국악원 원장 취임
- 이건용 (작곡 • 65) 세종문화회관 서양음악 총괄감독 겸 서울시립오페라단 단장 취임

Academic news





Guest Composer's Week | Prof. Reinhard Febel

In spring 2012, STUDIO2021 invited Professor Austrian Reinhard Febel, an active composer and music theorist from Mozarteum University, Austria On March 26th and 27th he presented two days of lecture-concerts and master classes.



신은재(작곡·석사), 라인하르트 페벨 교수

작곡가와 연주자, 음악학자가 한데 모여서 하나의 예술작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볼 수 있는 작업공간을 마련하고자 기획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현대음악시리즈 STUDIO2021에서는 2012년 봄 시즌 초청 작곡가로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전 유럽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작곡가이자 음악이론가 라인하르트 페벨(Reinhard Febel, 모짜르트음 교수)을 초청하여 3월 26일, 27일 이틀간 렉처콘서트와 마스터클래스를 개최하였다.

26일 개최된 렉처콘서트는 "현대음악에서의 음고와 길이의 구성(Pitch and Duration Concepts in Contemporary Music)"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되었다. 페벨 교수는 이미 오랜 역사를 지니는 현대음악에서 음악적 재료와 구조에 대해 지금껏 어떠한 새로운 시도들이 이루어져 왔는지 설명한 뒤에, 자신의 작품의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오늘날 현대음악에서 음가와 음고를 조작하는 아이디어를 어떻게 착수하고 발전시키는지에 대해 집중하여 강의를 이어갔다. 강연과 함께 그의 피아노 작품 《Sonaten 1-7 fu r Klavier》중 1번 《Scarlatti rey》와 4번 《...in Sand geschrieben (...written in sand)》이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강효지(작곡 박사과정)에 의해 연주되었다. 작곡가의 아이디어와 기법들이 악보 상에서 어떻게 구현되어 실제적으로 청중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잘 살펴보고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27일에는 분교 작곡과 학사, 석사,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작품을 대상으로 작곡 레슨이 진행되었다. 페벨 교수는 학생들의 작품을 꼼꼼히 살펴보고 직접 피아노 위에서 소리를 구현해가며 열정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였다. 레슨에 참여한 유웅재 학생(작곡·09)은 "곡의 제목과 음악과의 상관관계를 비롯하여 학생들이 애초에 생각했던 아이디어가 곡에 어떤 식으로 구현되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여러 창의적인 가능성들을 리케티나 락맨의 예시를 들어가며 보여주시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좋은 자극이 된 것 같다."고 레슨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STUDIO2021에서 "현대음악 특별 주간"을 계획하고 있다. 이 특별 주간에는 여러 명의 세계적인 작곡가와 지휘자, 연주자들을 초청하여 워크숍, 리사이틀, 렉처콘서트, 마스터클래스, 학생 연주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작곡과, 기악과, 성악과 교수 및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 시리즈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의 젊은 작곡가, 연주자, 음악학자들의 진취적인 작업공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글 | 작곡과 박사과정 신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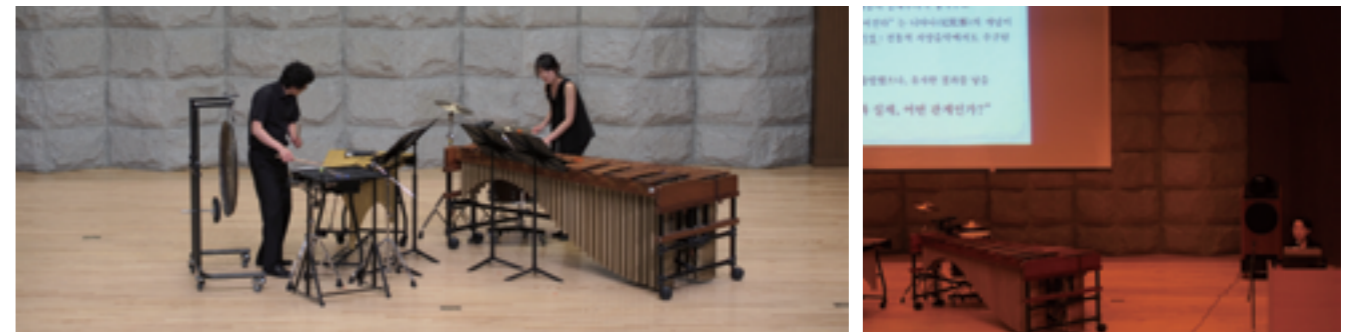


유웅재(작곡·09), 김승연(작곡·석사), 신은재(작곡·석사), 라인하르트 페벨 교수, 심은영(작곡·박사)

Composer's Studio | Prof. Tai-Bong CHUNG at 60



A concert was held on June 14th in the Concert Hall in honor of Professor of Composition Tai-Bong Chung's 60th birthday. Proceeding in a lecture-performance format, the performance aimed at a deep exploration of the world of Professor Chung's music. The evening featured three of Professor Chung's compositions including a piece for two percussionists 《Legend》(1999), the string quartet 《Nitana》(1996), and the string quintet 《Progress, Dual Variations on the Theme of Miryang Arirang》(2004).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현대음악시리즈 STUDIO2021의 작곡가의 작품세계를 살펴보는 작업공간 "Composer's Studio"로, 작곡과 정태봉 교수의 회갑을 기념하는 음악회가 지난 6월 14일 서울대학교 예술관 콘서트홀에서 열렸다. 이 음악회는 정태봉 교수의 작품 세계를 조망해보는 렉처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음악학자 서정은 박사의 강연과 함께 정태봉 교수의 세 작품-2인의 타악기 주자를 위한 《전설(傳說)》(1999), 현악 4중주를 위한 《니타나(尼陀那)》(1996), 현악 5중주 《진도, 밀양 아리랑 두 주제에 의한 이중변주곡》(2004)-이 Ensemble TMF와 타악기주자 김영운, 박라영에 의해 연주되었다. 특히 이 날 음악회에서 이루어진 강연은 짧은 시간동안 진행되었지만 한 작곡가의 작품세계를 분명하게 보여주어 정태봉 교수의 작품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서정은 박사는 《藝의 소리, 禮의 음악》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강연에서, 정태봉 교수의 작품의 근간을 이루는 사상적 배경과 함께 그것이 어떻게 작품에 실질적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청중들은 강연을 통하여 작곡가의 작품 전체를 아우르는 동양적 사상, 특히 불교철학의 상대주의적 사고가 드러나는 작품들의 예시를 볼 수 있었고, 이 날 연주되지 않은 정태봉 교수의 다른 작품들을 접할 수 있었다. 정태봉 교수는 1993년 교향시 《단군(檀君)》을 시작으로 교향시 《백두대간(白頭大幹)》(2002), 《남강(南江)》(2004), 《한국(韓國)》(2008), 그리고 2012년 최근 작품 《한강(漢江)》에 이르기까지 대편성 관현악곡을 주로 발표해 왔기 때문에 그의 여러 실내악곡을 들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다.

이러한 콘서트에서 연주된 2인의 타악기 주자를 위한 《전설(傳說)》(1999)과 현악 4중주를 위한 《니타나(尼陀那)》(1996)는 앞서 강연을 통해 설명된 상대주의적 사고가 작품 전체의 구조와 화음 구성, 음고 및 리듬의 연관성 등 음악적 재료의 바탕이 된 곡으로, 강연에서 살펴보았던 정태봉 교수의 사상적 바탕이 어떻게 음악적 기술을 통해 구현되었는지를 직접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전설(傳說)》에서 두 명의 타악기 주자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지속

적인 명료한 리듬형은 작곡가가 청중들에게 전해주려 했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자유롭게 연상시키기에 충분했고, 불교의 연기(緣起)를 뜻하는 《니타나(尼陀那)》에서는 분명하게 대칭형을 이루는 구조와 각 색선 간의 관계를 통해 작곡가의 상대주의적 사고를 살펴볼 수 있었다.

현악 5중주 《진도, 밀양 아리랑 두 주제에 의한 이중변주곡》(2004)은 깊은 한을 품고 있는 진도아리랑과 흥이 넘치는 듯한 밀양아리랑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작품으로, 정태봉 교수의 최근 작품경향을 직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던 무대였다. 강연에서도 잠시 언급되었던 "낙이불류, 애이불비(樂而不流, 哀而不悲)." 즉, 즐겁지만 난잡하지 아니하고, 슬프지만 비통하지 않다는 뜻의 우륵이 했다고 전해지는 말이 떠오르는 인상적인 작품이었다.

해외의 우수한 음악 기관과 단체들에서는 일찍이 작곡가들의 60회, 70회 생일을 기념하는 음악회를 개최하는 일로 작곡가들의 생일을 축하하고 그들의 작품 세계를 다각도로 조명해 오곤 하였다. 이번에 STUDIO2021 주관으로 개최된 정태봉 교수의 회갑 기념 음악회는 한 작곡가의 작품세계를 한 무대를 통해 관객들에게 보여주기엔 충분했다. 유혜림 학생(작곡·09)은 이번 렉처 콘서트에 대하여 "개인의 생각과 이상을 예술에 투영시키는 데에 오랜 시간 정진하신 선생님의 음악들을 들으며 작곡학도로서, 또 까마득한 후배로서 감동도 받고 앞으로 그 길을 걸어갈 용기도 다시 한 번 다짐했던 자리였다."고 회상했다. 이처럼 대한민국이라는 지역적·정신적 토양을 어떻게 우리 시대의 음악으로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많은 작곡과 학생들에게는, 이번 음악회가 먼저 그 길을 걸어간 정태봉 교수의 작품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살펴보고 또 다른 길에 대한 가능성을 고민해볼 수 있었던 유익한 배움의 장이기도 했다.

글 | 작곡과 석사과정 신나리

“음악대학 2012 Summer Music Academy”를 마치며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의 “Summer Music Academy”가 2012년 7월 23일~8월 14일, 23일간 서양음악연구소(소장 작곡과 이석원 교수) 주최로 개최되었다. 기악과 첼로전공에는 백청심 교수, 호른전공에는 김영률 교수가 참여하였으며, 특히 피아노전공에서는 김귀현, 김형배, 문익주, 박종화, 아비람 라이케르트, 장형준, 주희성, 최희연 여덟명의 교수가 모두 참여하여 음악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배움과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1차와 2차로 나뉘어 진행된 이번 SMA에서는 다양한 경험과 배경을 가진 42명의 수강생들이 교수 연구실과 예술관 연습실 등에서 각 4회의 공개 레슨을 받았다.

50분 간격으로 쉬는 시간도 없이 레슨을 이어가는 교수진들과, 본인의 레슨은 물론 다른 학생의 공개 레슨에까지 참여하여 연주와 지도에 귀를 기울이는 학생들의 열정은 무더위보다도 뜨거웠다. 각 교수의 연구실은 레슨중인 교수와 학생 말고도, 마치 자신이 레슨을 받는 듯 진지한 자세로 참관하는 학부모와 친구들, 다른 청강생들로 가득했다.

프로그램 마지막 날에 학생들은 음악 생활이나 진로에 관련된 고민과 꿈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교수님과 대화” 프로그램을 통해 뜻 깊은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이 시간에는 음악에 중심을 둔 자유롭고 폭넓은 대화가 오갔다. 또한 8월 7일과 14일에 수강생들은 각 수료식에 이어진 우수학생 연주회에서 그간 갈고닦은 기량을 선보이며 워크샵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프로그램 마지막 날에 학생들은 음악 생활이나 진로에 관련된 고민과 꿈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교수님과 대화” 프로그램을 통해 뜻 깊은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이 시간에는 음악에 중심을 둔 자유롭고 폭넓은 대화가 오갔다. 또한 8월 7일과 14일에 수강생들은 각 수료식에 이어진 우수학생 연주회에서 그간 갈고닦은 기량을 선보이며 워크샵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Summer Music Academy

학과 소식 | Wrap-up News of the Departments

>>> 성악과

3월 16일 : 노르만 셰틀러(Norman Shetler) 마스터클래스
 3월 29일 - 31일 : 성악과 총 세미나
 5월 2일 : 알렌 베넷(Alan Bennett) 마스터클래스
 5월 8일 : 음대 학부모초청 홈커밍데이 음악회

<2012년 2학기 예정>

10월 17 - 18일 : 브라이언 제거(Brian Zeger, 줄리어드대 교수) 마스터클래스
 10월 19 - 20일 : SNU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 《라보엠 La Boheme》 공연, 강동아트센터
 11월 8 - 10일 : 제27회 정기오페라 《라보엠》 공연, 문화관 대강당

>>> 작곡과

▶작곡전공

3월 12일 : 백병동 명예교수 특강
 3월 19일 : 강석희 명예교수 특강
 5월 7일 : 미술대학 조소과 최인수 명예교수 특강
 6월 4일 : 작곡가 추웬충(Chou Wen-chung) 특강
 6월 14일 : 정태봉 교수 회갑기념 사제동행음악회 "...길"

현대음악시리즈 STUDIO2021

3월 26일 : 라인하르트 페벨(Reinhard Febel) 렉처 콘서트
 3월 27일 : 라인하르트 페벨 작곡레슨
 6월 14일 : 정태봉 교수 회갑 기념 렉처 콘서트

<2012년 2학기 예정>

현대음악시리즈 STUDIO2021

9월 : 웬신양(Wen-Sinn Yang) 첼로 리사이틀
 벨라 브리스토티바(Bella Vristova) 바이올린 워크샵
 소프라노 유현아 워크샵 및 리사이틀
 데이빗 루드비히(David Ludwig) 렉처콘서트 및 작곡레슨
 SNU Young Composers' Concert
 오히숙 교수 강연 《신베르크, 달에 홀린 피에로 A. Schönberg, Pierrot Lunaire Op.21》
 10월 : 한스 젠더(Hans Zender) 렉처 콘서트 및 마스터클래스
 11월 : 현대 피아노 작품 연주(Contemporary Piano Works by SNU Young Pianists)
 12월 : 지휘자 에크하르트 클렘(Ekkhard Klemm)의 워크샵 및 공연
 《신베르크, 달에 홀린 피에로 A. Schönberg, Pierrot Lunaire Op.21》

▶이론전공

6월 15일 : 1학기 졸업논문 발표회, 음악대학 시청각실
 7월 30일 : 해외 저명학자 초청 학술대회 개최
 - 크리스텐슨(Thomas Christensen)교수 강연 및 콜로퀴엄
 7월 31일 : 해외 저명학자 초청 학술대회 개최
 - 심포지엄 "음악이론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크리스텐슨, 송무경, 정문혁 교수
 8월 1일 : 해외 저명학자 초청 학술대회 개최 - 원탁토론

>>> 기악과

▶피아노전공

3월 16일 : 에드워드 아우어(Edward Auer) 마스터클래스
 3월 23일 : 유진 프리도노프와 엘리자베스 프리도노프(EugenePridonoff & Elisabeth Pridonoff) 마스터클래스
 3월 30일 : 알렉산더 브라진스키(Alexander Braginsky) 마스터클래스
 4월 13일 : 토마스 웅가(Thomas Ungar) 마스터클래스
 4월 23일 : 서울대 명예교수 신수정 마스터클래스
 5월 7일 : 파스칼 아모엘(Pascal Amoyel) 마스터클래스
 5월 11일 : 구스타브 로메로(Gustavo Romero) 마스터클래스
 5월 24일 : 엘리시 엔리코(Elisi Enrico) 마스터클래스
 5월 31일 : 베다 카플린스키(Yoheved Kaplinsky) 마스터클래스

<2012년 2학기 예정>

10월 7 - 10일 : 메나헴 프레스러(Menahem Pressler) 실내악 마스터클래스
 10월 23일 : 리처드 에가(Richard Egarr) 고음악 강의

▶현악전공

4월 5일 : 필립 물러(Philippe Muller) 첼로 마스터클래스
 4월 10일 : 아미어 엘단(Amir Eldan) 첼로 마스터클래스, 데이빗 보울린(David Bowlin) 바이올린 마스터클래스
 5월 3일 : 배익환 바이올린 마스터클래스
 5월 24일 : 루시에 로버트(Lucie Robert) 바이올린 마스터클래스

<2012년 2학기 예정>

11월 : 스트링 앙상블 공연, 서울음대 예술관 콘서트홀
 11월 18일 : Spirit of SNU Strings II, 예술의전당 IBK홀

▶관악전공

5월 2일 : Spring Concert (발전기금 콘서트)
 5월 8일 : 화요음악회
 5월 11일 : 관악 오케스트라 야외음악회
 5월 23일 : 광고 페스티벌, 서울대 융합기술대학원
 6월 19 - 20일 : MoA(Museum of Art, Seoul National University) 공연
 8월 11 - 14일 : SNU Wind Ensemble 제주국제관악제 참가

<2012년 2학기 예정>

11월 23일 : SNU Wind Ensemble 정기연주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11월 : SNU Wind Orchestra 정기연주회

10월 19 - 20일 : SNU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오페라(라보엠) 연주 강동아트센터
 10월 26일 : SNU 심포니 연주회, 예술관 콘서트홀
 11월 8 - 10일 : SNU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오페라(라보엠) 연주 문화관 대강당
 12월 17일 : SNU 심포니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예술의전당

>>> 국악과

3월 7일 : 신입생 연주회
 3월 9일 : 신입생 환영 연주회
 3월 20일 : 오용록 교수 추모회
 5월 1일 : 해금반 연주회 - 해금 앙상블 '핵심' 공연
 5월 9일 : 박물관 수요 한국음악 연주회
 5월 11일 : 1학년 가야금반 연주회
 5월 16일 : 3학년 가야금반 연주회
 5월 23일 : 수요 박물관 연주회 - 가야금 사중주
 5월 30일 : 박물관 수요 한국음악 연주회 - 국악작곡과 학생들 신작 초연 무대
 6월 18-29일 : 국악과 하계방학 특강

<2012년 2학기 예정>

9월 8일 : 동양음악연구소 국내학술회의
 10월 : 창작음악연주회
 11월 2일 : 제54회 서울대학교 국악정기연주회
 12월 : 전통가곡연주회

연구소 소식 | Institutes

>>> 서양음악연구소

학술회의

(1) 서양음악연구소 학술연구 발표

- 일시 : 2012년 1월 25일
- 장소 : 서양음악연구소 (220동 430호)
- 발표자 : 이미배 학술연구원
- 주제 : 슈만의 바흐 수용

정기간행물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 음악이론연구 > 제 18집 (2012년 1권) 발행

연구소 지원 단행본 출간

- (1) 이장직 (서양음악연구소 특임연구원), 오페라 보다가 앙코르 외쳐도 되나요?
 - (2) 이장직 (서양음악연구소 특임연구원), 음악회 가려면 정장해야 하나요?
- 연구소 지원 학술 논문 게재
안소영 (서양음악연구소 학술연구원), < 토글링 성부 진행을 통한 무조적 4 음군의 옥타브닉타워 >, 음악이론연구 18, 2012 : 8-40.

학술대회

(1) 음악이론의 과거, 현재, 미래

- 주관 : 서양음악연구소
- 공동주최 : 서양음악연구소, 연세대 음악연구소, 한국서양음악이론학회, 한국음악학회

• 일시 : 2012년 7월 30 - 8월 1일 (3일간)

• 장소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2) 서양음악연구소 학술연구 발표

- 일시 : 2012년 8월 25일
- 장소 : 서양음악연구소
- 발표자 : 이경면 특임연구원
- 주제 : 음악하는 뇌

<2012년 2학기 예정>

정기간행물

- (1)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 음악이론연구 > 제 19집 (2012년 2권) 발행예정일 : 2012년 12월 15일

>>> 동양음악연구소

<2012년 2학기 예정>

학술대회

음악의 전이과정과 습득실재 : 한국과 독일 (Transferprozesse und Aneignungspraktiken von Musik : Korea & Deutschland)

- 일시 : 2012년 9월 7일 - 2012년 9월 8일 (2일간)
- 장소 : 소천국제회의실
- 발표 : 황준연(서울대), 전인평(중앙대), 문옥배(침례신학대), 권혜근(성균관대), 김진아(서울대), 막스 페터 바우만(Max Peter Baumann, Universität Bamberg)

>>> 오페라연구소

3월 15 - 18일 : 서울 대표 창작오페라 <연서> 공연 서울음대 작곡과 최우정 교수의 작품을 서울시오페라단과 공연. 오페라 연구소장인 박세원 교수가 예술총감독을 맡았으며 오페라연구소 출신 연구원들이 주·조연을 맡아 열연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악과 학생들이 연주에 참여하였다.

빨간 우체통



어디에? 54동 음악대학 1층 로비

음악대학 소식 제10호 | 2012년 9월 1일 발행

발행인_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학장 김영욱

기획_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부학장 전상직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_ 오희숙 기획홍보실장(작곡과 교수)

영문편집_ Prof. Hilary V. Finchum-Sung (국악과)

편집위원_ 김혜영 기획홍보실 조교

김소이 음악과 이론전공 석사과정

박성우 작곡과 이론전공

신예슬 작곡과 이론전공

박진하 음악춘추사 기자

출판_ 음악춘추사

사진_ 김문기 음악춘추사 사진부장

디자인_ 디자인아프리카

인쇄_ 용성문화사

College of Music Magazine Vol.10

Publisher_ Prof. Young Uck Kim, Dean of College of Music, Seoul National University

Adviser_ Prof. Sangjick Jun, Associate Dean of College of Music, Seoul National University

Editorial Committee

Editor_ Prof. Hee Sook Oh, Department of Composition, Chair of the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 PR

English Editor_ Prof. Hilary V. Finchum-Sung, Department of Korean Traditional Music

Editorial Board_ Hye Young Kim, Staff of the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 PR

Soyi Kim, MA course in Musicology

Sung-woo Park BA course in Musicology

Yeaseul Shin, BA course in Musicology

Jinha Park, Journalist CHUNCHU Music Publishing

Publishing_ CHUNCHU Music Publishing Co.

Photo_ Moongi Kim, Chair of the Photo Department, CHUNCHU Music Publishing Co.

Design_ Design in Africa

printing_ Ryong Sung Total Printing